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11호 6월 5일

평양 근로자사 1964

근로자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관지

(반 월 간)

第 11 호 (249)

1964년 6월 (상)

차　　　례

조선 혁명의 앞길을 밝힌 창조적 맑스-레닌주의 로작

총 6 권으로 된 김 일성 선집 제 2 판이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직속 당력사 연구소 편찬으로 발간되고 있다.

선집 제 2 판의 4, 5, 6 권은 이미 발간되였으며 최근에는 처음으로 발표되는 적지 않은 로작들로 보충된 1, 2 권이 발간되였다.

김 일성 선집 제 2 판의 발간은 로동당원들과 조선 인민의 사상 생활에서 커다란 사변으로 된다.

선집에는 조선 혁명 발전의 매 시기에 로동당이 제기한 로선과 정책들이 심오하게 천명되여 있으며 당 내외의 원쑤들과의 치렬한 투쟁에서와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로동당이 쌓은 고귀한 경험들과 투쟁 업적들이 맑스-레닌주의 립장에서 전면적으로 분석 개괄되여 있다.

김 일성 선집은 조선 혁명에 이바지하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활과 사업의 지침으로 되고 있으며 또 되여야 한다.

김 일성 선집은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진리를 조선 혁명의 실천에 능숙하게 적용하고 있는 조선 로동당의 리론적, 실천적 활동을 보여 주는 탁월한 맑스-레닌주의 저서이다.

선집에 담겨 있는 로작들은 우리 당이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확고히 고수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옳게 적용하며 그것을 어떻게 대중의 혁명 투쟁과 유기적으로 결부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 주는 산 모범으로 된다.

리론에 대한 교조적 태도를 배격하며 맑스-레닌주의 원칙과 현실에 대한 면밀한 타산에 기초하여 대담하게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 방도를 강구하는 창조적 정신이 선집 전반을 관통하고 있다.

선집에 수록된 로작들은 또한 맑스-레닌주의가 실생활에 옳게 구현되는 과정은 평탄한 것이 아니며 그것은 온갖 기회주의적 편향과의 원칙적이며 비타협적인 투쟁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확증하여 주고 있다. 온갖 반맑스주의 편향들을 견결히 반대하며 주체를 철저히 확립하는 혁명적 정신이 선집 전반을 관통하고 있다.

선집에서 1, 2 권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선집 1, 2 권에는 해방 직후부터 조국 해방 전쟁까지의 평화적 건설 시기의 주요 보고, 연설, 론설들이 수록되여 있다. 이 시기에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이 수행되고 북반부는 사회주의에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점차적으로 들어 서게 되였다.

이 시기에 우리 나라에서는 력사에서 처음으로 근본적인 사회적 변혁이 시작되고 진척되였다.

이것은 조선 공산주의자들 앞에 이 사회적 변혁을 령도할 수 있는 맑스-레닌주의당을 창건하며 조선 혁명에서 제기되는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리론적 해명을 주며 그 실천적 해결 방도를 강구할 과업을 제기하였다.

선집 1, 2 권은 바로 이러한 시기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선집 1, 2 권에서 김 일성 동지는 조선 혁명의 근본적 문제들과 우리 사회 발전에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문제들에 대하여 전면적인 해명을 주고 있다.

이 중 많은 문제들이 김 일성 동지의 그 후 시기의 로작들에서 더욱 구체화되고 심화 발전되였다.

그러나 바로 선집 1, 2 권에서 모든 문제 해결의 초석은 이미 마련되여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선집 1, 2 권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 당의 사상과 투쟁 경험으로 철저히 무장하며 우리 당의 오늘의 정책과 로선을 심오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다.

우리는 아래에 1, 2 권에서 천명된 주요 문제들에 대하여서만 제기하려 한다.

1, 우리 나라 혁명의 성격과 로선에 관한 문제

해방 후 조선 인민은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작성된 정확한 혁명 로선을 따라 확고히 전진하여 왔다.

사회를 혁명적으로 변혁하며 나라의 세기적 락후성을 청산하고 번영과 륭성을 이룩하는 투쟁에서 우리 인민이 달성한 위대한 성과들은 그 어느 것을 막론하고 우리 당이 견지한 정확한 혁명 로선과 떼여서 생각할 수 없다.

락후한 식민지 농업국이였던 우리 나라가 오늘은 자립적인 민족 경제의 확고한 토대를 가진 사회주의 공업-농업국으로 전변되였으며 나라의 국제적 위신이 높아지고 우리 민족이 일대 번영기에 처한 이 모든 것은 우리 당 혁명 로선의 위대한 생활력을 증시하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해방 직후 우리 나라의 사회 형편과 정세 발전에 대한 심오한 맑스-레닌주의적 분석에 기초하여 우리 인민이 나아갈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혔다.

《새 조선 건설과 민족 통일 전선에 대하여》를 비롯한 일련의 로작들에는 조선 혁명의 성격과 로선이 천명되여 있다.

김 일성 동지는 해방 직후 우리 나라 혁명의 성격과 로선을 규정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선집 제 1 권, 3 페지)들로부터 출발하였다.

첫째로, **《그것은 조선이 오래 동안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였다는 사실》**(상동)이며

둘째로, **《제 2 차 대전 후에조성된 유리한 국제 정세와 아울러 북위 38도를 계선으로 하여 제국주의 국가인 미국 군대와 사회주의 국가인 쏘련 군대가 남북에 진주하고 있는 사실》**(선집 제 1 권, 4 페지)이였다.

장기간에 걸친 일제의 지배로 인하여 조선에서 자본주의의 발전은 심히 억제당하였으며 조선 사회는 봉건적 잔재를 다분히 가진 식민지 사회로 남아 있였다.

특히 조선 농촌에서는 봉건적 착취 관계가 지배하고 있었다.

이로부터 김 일성 동지는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을 완수하는 것을 조선 혁명의 당면 과업으로 규정하였으며 혁명의 대상은 제국주의 침략 세력과 그 세력을 부식하려는 제국주의의 주구들, 그와 결탁한 봉건 세력이며 혁명의 동력은 로동 계급과 농민 대중, 그리고 애국적 지식인, 량심적인 민족 자본가들을 포괄한다고 명확히 해명하였다. (선집 제 1 권, 7~9 페지 참조)

이와 같이 우리 혁명의 성격과 혁명의 대상 및 동력에 관한 문제가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해방 직후에 과학적으로 해명된 것은 조선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결정적 의의를 가지였다.

선집 1,2 권에는 공화국 북반부에서 수행된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이 가지는 일련의 중요한 특성들이 심오하게 개괄되여 있다.

해방 후 우리 나라에서는 국내에 조성된 계급적 력량 관계와 나라의 사회 경제적 제 조건 그리고 유리한 국제적 환경 등으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로동 계급의 확고한 령도 하에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이 수행되였다.

해방 전에 우리 나라에서는 로동 계급이 성장하고 가장 선진적 투사로서 민족 해방의 투쟁 무대에 등장하였으며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끝까지 용감하게 싸웠다.

1930 년대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하던 시기에 로동 계급은 조선 혁명의 령도 계급으로서 투쟁의 선두에 서 있었다.

조선의 자본가 계급은 일본 제국주의와 결탁하여 조선 인민을 착취하고 압박하였으며 또한 그들의 력량은 매우 미약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오직 로동 계급만이 조선 혁명을 령도할 수 있다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일본 제국주의 앞에 투항하고 그와 야합한 조선의 자본가 계급이 혁명을 령도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끝까지 영용하게 싸운 로동 계급만이 조선 혁명을 령도할 수 있으며 또 반드시 령도하여야 한다.》(선집 제 1 권, 4 페지)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 나라에서의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은 낡은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보다 비할 바 없이 심각하고 그의 테두리를 훨씬 벗어 난 것이였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오늘의 조선에는 미국이나 영국식 〈민주주의〉가 맞지 않는다. 서구라파의 〈민주주의〉는 이미 시대에 뒤떨어졌을 뿐 아니라 만일 우리가 그것을 채용한다면 나라의 독립을 달성하려는 우리의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고 다시 외래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에는 조선 실정에 부합되는 새로운 진보적인 민주주의 제도를 세워야 한다.》(선집 제 1 권, 9~10 페지)

이것이 바로 김 일성 동지의 인민 민주주의 혁명 로선이다.

이것은 레닌의 계속 혁명에 관한 리론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적합하게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더욱 발전시킨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의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은 그 자체가 사회주의 혁명에로의 계속 이행을 위한 조건과 가능성을 조성하는 과정이였으며 민주 혁명의 철저한 수행은 곧 사회주의 혁명의 서막으로 되였다.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작성된 혁명 로선은 순조롭게 관철된 것이 아니다.

해방 직후 《엠엘파》의 변종인 《장안파》 분자들은 민주 혁명 단계를 뛰여 넘어 즉시 프로레타리아 독재 정권을 수립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또한 《화요파》인 박 헌영 도당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방조》를 받아 독립을 달성할 수 있다고 황당하게 주장하였다.

이것들은 모두다 당과 대중을 리탈시키며 조선 혁명에 심대한 손실을 줄 수 있는 좌우경적 기회주의 견해들이였다.

우리 당의 혁명 로선은 이러한 각종 좌우경적 편향들을 극복하는 투쟁 속에서 실생활에 옮겨졌으며 혁명 승리의 길을 개척하여 나갔다.

김 일성 동지는 우리 혁명의 성격과 전망을 명확히 밝혔을뿐만 아니라 혁명을 가장 성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정확한 전략적 로선, 로동 계급의 령도 하에 통일 전선에 기초하여 북반부를 조선 혁명의 책원지로 전변시킬 데 대한 민주 기지 창설 로선을 제기하였다.

민주 기지 로선은 미제의 남조선 강점으로 우리 혁명 발전에 복잡한 사태가 조성된 정세 하에서 모든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혁명 승리를 위한 주체적 력량을 튼튼히 꾸리며 이 힘에 의거하여 혁명을 적극 추진시키려는 창조적 방침이며 철저한 반제 로선이다.

해방 후 북반부에는 혁명 발전을 위한 유리한 조건들이 지어졌으나 남반부에서는 나라의 독립과 민주주의적 발전이 심히 유린되고 억제되였다. 조선 인민은 통일된 력량으로 민족적 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는 동시에 북조선과 남조선의 각이한 조건에서 혁명 투쟁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북조선에서 혁명을 급속히 발전시키는 것은 전반적으로 조선 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키는 데 있어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였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현 단계에 있어서 우리 당의 정치 로선은 모든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 단체들과의 련합의 기초 우에서 우리 나라에 통일적 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하며 북조선을 통일된 민주주의적 독립 국가 건설을 위한 강력한 민주 기지로 전변시키는 것이다.》(선집 제 1 권, 26~27 페지)

《우리가 만일 북조선의 유리한 조건을 충분히 리용하지 못 한다면 남조선의 민주화를 실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국토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북조선에서 당의 력량을 강화하고 민주주의 기지를 튼튼히 닦는다면 전 조선의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다.》(선집 제 1 권, 81 페지)

북반부를 조선 혁명의 강력한 기지로 전변시키고 그를 공고히 한다는 것은 결국 정치적으로는 조선 혁명의 참모부인 우리 당을 강화하고 로농 동맹에 기초하여 각 계층 군중을 당 주위에 튼튼히 결속함으로써 북반부를 단일한 정치적 력량으로 꾸리며 경제적으로는 자립적인 민족 경제를 건설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우리 인민이 완전히 경제적 자립을 이룩할 수 있는 물질적 지반을 구축하며 군사적으로는 어떠한 침략자들의 침해로부터도 조국을 수호할 수 있는 자위적인 국방력을 갖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 2 차 세계 대전 직후 세계 일부 나라들에서는 미제에 대한 환상이 이러저러하게 조성되여 있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박 헌영 도당은 미제국주의자들을 마치 조선 인민의 해방자이며 조선 혁명의 원조자인듯이 선전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해방 직후 미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질을 명철하게 간파하고 그에 대처하여 북반부를 최단 기간 내에 튼튼한 반제 력량으로 꾸리며 조선 혁명의 근거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방침을 제시하였다.

조선 인민은 날이 가면 갈수록, 혁명이 더욱 심화 발전되고 그 종국적 승리가 가까와지면 질수록 해방 직후에 민주 기지 창설 로선을 제기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시킨 김 일성 동지의 탁월한 통찰력과 현명성에 대하여 더욱더 생각하게 된다.

민주 기지 로선의 정당성은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에 의하여 완전히 확증되였다.

우리 당이 제때에 민주 기지를 창설

하고 그것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공고히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3년 간에 걸친 가렬한 전쟁에서 미제를 비롯한 16개국 무력 침공자들을 물리치고 조국의 독립과 영예를 수호할 수 있었다.

조선 인민은 전 세계 인민들의 국제적 성원을 받으면서 자체의 강력한 민주 기지에 의거함으로써만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실로 민주 기지 로선은 조선 혁명의 승리적 추진을 위하여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유일하게 정당한 로선이다.

민주 기지를 창설하고 강화하기 위한 투쟁은 해방 직후부터 줄기차게 진행되였다.

당이 창건되고 그의 유일적 지도가 확립되였으며 북조선 림시 인민 위원회가 수립되고 토지 개혁을 비롯한 제반 민주 개혁이 실시된 결과 북반부를 민주 기지로 전변시키는 정치 경제적 기초가 축성되였다. 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제국주의적 및 봉건적 제 관계를 혁명적으로 청산한 민주 개혁의 승리적 수행은 북반부를 조국의 민주주의적 발전의 튼튼한 기지로 전변시켰으며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으로부터 우리 조국을 구원하는 강력한 기지로 전변시키였다.

김 일성 동지는 새 조국 건설의 첫날부터 각계 각층 군중과의 사업에 심중한 관심을 돌렸으며 민족 통일 전선을 형성하고 강화하는 사업을 혁명 수행에서 가장 중심적인 문제로 제기하였다.

선집 1권에 수록된 《새 조선 건설과 민족 통일 전선에 대하여》, 《민주주의 민족 통일 전선 위원회를 결성할 데 대하여》, 제 2 권에 수록된 《우리 당 단체들의 과업에 대하여》 등 일련의 로작들에는 통일 전선 운동에 대한 당의 정책이 전면적으로 천명되여 있다.

김 일성 동지는 이 로작들에서 통일 전선을 강화할 필요성과 민주 정당들과 통일 전선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을 밝혔으며 통일 전선 내에서 우리 당이 고수하여야 할 원칙들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화 정책을 분쇄하고 전 조선을 완전히 해방하며 통일적인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창건함에 있어서 광범한 대중을 쟁취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며 선차적인 문제의 하나로 제기되였다.

이로부터 김 일성 동지는 애국적이며 민주주의적 각 당, 각 파와 련합하여 광대한 민주주의 민족 통일 전선을 결성할 데 대한 전술 방침을 작성하였다. 이것은 가능한 일체의 동맹자를 쟁취하고 적을 최대한으로 고립시켜 격파하는 혁명적 방침이였다.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당이 민주 정당들과 련합할 수 있는 기초는 그들이 외래 제국주의의 압박을 반대하고 부강한 조선을 건설하는 것을 강령으로 삼고 있으며 조국의 완전 독립과 민주주의적 통일을 달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데 있다고 가르쳤다.(선집 제 2 권, 38~43 페지 참조)

우리 당의 통일 전선 정책은 통일 전선 내에서 로동 계급의 령도적 역할과 우리 당의 독자성을 확고히 견지하며 통일 전선의 기본 핵심인 로농 동맹을 강화하며 그 기초 우에서 일체 반제 반봉건적 애국 력량을 집결시키는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 당은 통일 전선 사업에서 자기의 독자성을 절대로 잃지 말고 항상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며 추미주의적 경향을 단호히 배격하여야 할 것이다.》**(선집 제 1 권, 193 페지) **《지금 우리가 통일 전선을 튼튼히 형성하려면 우선 로동자와 농민들의 동맹을 강화하여야 하며 광범한 농민들을 우리 편에 쟁취하여야 한다.》**(선집 제 1 권, 8 페지)

김 일성 동지는 또한 민족 자본가들을 포함한 광범한 계층들과 련합을 형성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들과 단결하는 동시에 투쟁하는 원칙》**(선집 제 1 권, 6~7 페지)을 견지하는 것이며 특히 당이 통일 전선 사업에서 오유를 범하지 않으려거든 여하한 조건 하에서도 일제의 주구들과 결코 통일 전선을 형성하지 말아야 하며 적아를 옳게 분별하고 대중이 발동되여 적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군중 공작을 능숙히 진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당은 통일 전선 운동에서 좌우경적 편향을 엄격히 경계하였다. 당은 《대동 단결》을 제창하면서 일본 제국주의 주구들과의 련합을 주장하는 우경적 경향과 로동 계급은 오직 농촌의 고농, 빈농과만 동맹하여야 한다는 좌경적 경향을 철저히 배격하였다.

우리 당이 제때에 통일 전선을 강화할 데 대한 문제를 가장 중요한 정치적 문제의 하나로 제기하고 그것을 훌륭히 해결한 결과 기백만 대중이 우리 당의 주위에 집결되였으며 로동 계급이 령도하는 로농 동맹에 기초한 광범한 민주주의 력량의 공고한 단결이 이룩되였다.

이것은 혁명 력량을 확대 강화하고 적대 세력을 고립시키게 하였으며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적 개조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 중요한 밑천으로 되였다.

우리 당의 통일 전선 정책의 빛나는 승리는 북반부의 전체 인민들이 로동당의 주위에 튼튼히 결속되여 당이 제기한 혁명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공화국 북반부를 조선 혁명의 강력한 보루로 전변시켰으며 인민들의 정치 사상적 통일과 단결이 강화된 데서 명백히 표현되고 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공화국 북반부를 강력한 혁명 기지로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시켰으며 이 기지에 의거하여 혁명을 계속 급속히 추진시키고 있다.

우리 인민은 당이 제시한 혁명 로선을 따라 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하고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였으며 사회주의 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였다. 우리는 앞으로도 당의 로선에 확고히 의거하여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전진할 것이다.

2, 맑스-레닌주의당의 창건과 강화 발전에 관한 문제

선집에 수록된 《북조선 로동당 제 2 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를 비롯한 일련의 로작들에서는 당 창건에 관한 방침이 천명되고 있으며 우리 당이 대중적 당으로 급속히 강화 발전된 행정이 전면적으로 개괄되여 있다.

김 일성 동지는 당 창건 방침을 작성함에 있어서 당 건설에 관한 레닌적 원칙에 철저히 의거하는 동시에 우리 나라 공산주의 운동의 특성과 해방 직후에 조성되였던 혁명 정세를 과학적으로 타산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장기간에 걸친 항일 무장 투쟁 과정에서 당의 혁명 전통이 이룩되였으며 당 창건을 위한 조직 사상적 준비가 확고히 이루어

졌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하는 령도 핵심이 형성되고 그 주위에 공산주의 대렬이 튼튼히 결속되였으며 맑스-레닌주의 혁명 로선이 수립되였다. 당 창건을 위한 튼튼한 대중적 지반도 축성되였다.

8.15 해방은 조선 혁명 발전에 새로운 국면을 열어 놓았다. 해방과 함께 공산주의자들을 선두로 하는 혁명 력량과 미제와 그에 추종하여 나선 반혁명 력량 간에 치렬한 투쟁이 벌어졌다.

로동 계급의 맑스-레닌주의적 당을 지체 없이 창건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데 혁명의 운명이 달린 그러한 긴박한 정세가 조성되였다.

당 창건을 위한 사업에는 헤아릴 수 없는 난관들이 가로놓여 있었다.

미제와 국내 반동들은 자기의 주되는 포화를 조선 공산주의 운동에로 돌렸으며 또한 반당 종파 분자들이 공산주의 운동과 근로 대중을 사분오렬케 하려고 날뛰였다.

김 일성 동지는 이러한 복잡한 정세 하에서 당을 창건하고 혁명 력량을 튼튼히 꾸리기 위하여서는 《…북조선 각지에 산만하게 조직되였던 지방의 당 단체들을 결속하여 북조선의 모든 유리한 조건과 환경에 맞게 당의 정치 로선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강유력한 중앙 지도 기관을 북조선에 창설하는 것이 필요하다》(선집 제 2 권, 151 페지)고 인정하였다.

지방 당 조직들을 결속하고 그에 대한 유일적 지도 체계를 확립하는 방법으로 통일적 당을 창건하는 것은 우리 당 령도 핵심의 주위에 공산주의 대렬을 급속히 집결시키며 당의 분렬을 방지하고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적 원칙을 철저히 확립하는 가장 빠른 길이였다.

또한 당 중앙 지도 기관을 북조선에 두는 것은 북조선의 모든 유리한 조건들을 리용하여 당의 력량을 확대하고 혁명적 민주 기지를 튼튼히 다짐으로써 전국의 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킬 수 있는 확고한 담보였다.

이리 하여 1945년 10월 10일,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이룩된 혁명 전통을 계승하고 령도 핵심을 골간으로 하여 조선 공산당 북조선 조직 위원회가 창설되였다.

《이 때부터 우리 당은 통일적이며 건전한 맑스-레닌주의적 당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선집 제 4 권, 525 페지)

해방 후 2 개월도 못 되는 짧은 기간에 통일적인 당을 창건한 것은 우리 혁명의 전도를 과학적으로 예견한 현명한 조치였다.

김 일성 동지는 《북조선 로동당 제 2 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만일 우리가 종파쟁이들이 주장하던 대로 그 때에 조직 위원회를 창설하지 않고 서울만 쳐다 보면서 각 지방의 분산된 당 단체들을 통일적으로 지도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북조선의 형편이 어떻게 되였을 것이며 우리 조국의 운명이 어떻게 되였을 것인가? 의심할 바 없이 우리 당은 오늘과 같은 대중적 정당으로 발전하기는 고사하고 종파 분자들의 손에 롱락되여 사분오렬되였을 것이며 북조선에서 민주주의적 개혁의 승리를 보장하지 못 하였을 것이며 북조선에 조국의 완전 자주 독립을 위한 튼튼한 민주주의적 근거지를 창설하지 못 하였을 것이다.》(선집 제 2 권, 153 페지)

통일적 당이 창건된 새로운 조건에서 우리 당을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초미의 문제로 제기된 것은 당의 통일과 규률을 강화하고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며 간부들을 양성하고 당의 력량을 배치하는 사업을 개선하는 것 등이였다.

김 일성 동지는 조선 공산당 북조선 조직 위원회 제 3 차 확대 집행 위원회에서 한 보고 《북조선 공산당 각급 당 단체들의 사업에 대하여》와 결론 《당의 공고화를 위하여》에서 통일 전선을 결성하고 당의 정치 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할 데 대한 문제, 당의 순결성을 보장하며 당의 사상 의지의 통일을 강화할 데 대한 문제, 당을 로동 계급 속에 깊이 뿌리 박게 하며 당의 규률을 강화할 데 대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구체적인 해결 대책들을 제시하였으며 당 간부들을 양성하고 배치하는 사업에 특별한 주의를 돌릴 것을 강조하였다:

《제 3 차 확대 집행 위원회는 우리 당이 창건된 후 처음으로 당 사업과 당 생활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게 하였으며 이 때부터 비로소 우리 당이 진실로 건전하고 강력한 당으로 발전하게 되였다.》(선집 제 2 권, 155 페지)

김 일성 동지는 당 조직이 공고화되고 근로 대중이 당을 열렬히 지지하게 됨에 따라 사회의 진보와 국가 정치 생활의 급격한 변화에 상응하게 우리 당을 더욱 광범한 토대를 가진 대중적 정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침을 제시하였다.

우리 당을 강력한 대중적 정당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조선 근로 대중의 통일을 강화하며 당의 령도적 역할을 더욱 제고하여 혁명을 승리적으로 추진시키는 가장 정당한 조치였다.

《근로 대중의 통일적 당의 창건을 위하여》, 《북조선 로동당 창립 대회의 총화에 관하여》,《로동당의 창립과 당면한 과업》 등 일련의 저작들에서는 공산당과 신민당의 합동이 필연적이고 가장 적절한 조치라는 것이 론증되였으며 대중적 당으로서의 로동당 건설의 방향과 방도가 명시되였다.

김 일성 동지는 《공산당과 신민당은 조선 근로 대중의 절실한 요구의 관철을 위하여 투쟁하여 왔으며 또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목적과 과업을 가진 두 당의 합동은 필연적이다》(선집 제 1 권, 177 페지)라고 지적하였다.

근로 대중의 대중적 정당으로의 발전은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제시된 우리 당 조직 로선의 새로운 발전 단계를 의미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민주 개혁이 실시되고 공산주의적 력량이 장성하였으며 로동 계급 속에서 수 많은 당 간부들이 육성되여 당의 기본 핵심이 튼튼히 꾸려진 기초 우에서 적시에 대중적 정당 조직에 대한 방침을 제시하고 정확한 지도를 주었다.

김 일성 동지는 또한 우리 당을 대중적 당으로 발전시킴에 있어서 조선의 농민 대중과 근로 인테리들의 특성과 해방 후 그들의 처지에서 일어 난 근본적 변화를 면밀히 타산하였다.

과거 장기간에 걸친 일제의 식민지 통치 하에서 가장 야만적인 착취와 억압을 받아 온 조선의 로동 계급, 농민은 혁명성이 비상히 강하였으며 민족적 멸시를 당하여 온 인테리들은 진보적이였다.

농민과 절대 다수의 인테리들은 반제 반봉건 민주 혁명에서 로동 계급과 더불어 일치한 리해 관계를 가지고 있였다.

더우기 북조선에서 위대한 민주주의적 개혁들이 실시된 결과 로동 계급과 농민, 근로 인테리들의 처지는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그들의 리해 관계가 더욱 더 일치하게 되였으며 그들 간의 정치 경제적 동맹이 가일층 공고한 것으로 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대중적 당으로의 발전은 필연적이며 가장 적절한 것이였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로동 계급과 농민, 근로 인테리들의 동맹을 더욱더 공고히 하며 광범한 근로 대중을 국가 정치 생활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가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로동자, 농민, 근로 인테리들의 공통적인 리익을 대표하는 대중적 정당이 필요하게 되였다.》(선집 제 2 권, 156 페지)

우리 당은 일부 사람들이 당을 《소자

산 계급화》한다고 보는 그릇된 견해를 단호히 물리치고 1946년 8월 28일에 신민당과 합당하여 조선 근로 대중의 유일한 대중적 정당인 로동당으로 발전하였다.

우리 당의 로동당으로의 발전은 로동자, 농민, 근로 인테리들의 광범한 대중을 튼튼히 결속시키고 민주 력량을 확대 강화하며 민주 건설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거대한 력사적 의의를 가졌다.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당이 대중적 정당으로 발전한 조건에서 당을 강화하고 그의 전투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 건설의 원칙과 방도를 창조적으로 작성하였다. 그 중 중요한 것들은 당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할 데 대한 문제, 당 핵심을 육성하고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며 맑스-레닌주의 교양을 강화할 데 대한 문제, 인민적 사업 작풍을 확립할 데 대한 문제들이다.

당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할 데 대한 문제는 우리 당 건설에서 실로 사활적인 문제로 제기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 로동 운동에서 력사적으로 형성된 종파 도당들이 당 내에 잠입하여 책동하고 있었으며 단련된 간부들이 부족하고 당원들의 정치적 수준이 낮았던 사정과 관련되여 있었다.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함에 있어서 종파주의, 지방 할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우리 당이 창건된 그 때부터 첫 자리를 차지하였다.

《종파주의는 당의 통일과 단결을 와해시키며 로동 운동을 파괴하는 해독적인 사상이다.》(선집 제 1 권, 88 페지)

김 일성 동지는 일련의 로작들에서 종파주의, 지방 할거주의의 본질과 해독성을 폭로 비판하면서 전 당에 엄격한 중앙 집권적 규률을 확립하고 당원들의 당 생활을 강화하며 종파주의, 지방주의, 자유주의 등 비프로레타리아 사상을 반대하여 투쟁할 것을 강조하였다.

당은 김 일성 동지의 지도 밑에 자기의 혁명적 대오를 철석 같이 꾸리기 위한 투쟁을 끊임 없이 전개하였으며 어떤 환경, 어떤 어려운 조건 하에서도 주저 없이 종파주의의 발현에 대하여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였다.

우리 당은 이 방침에 확고히 의거하여 우리의 형편이 어려울 때마다 머리를 쳐들고 집요하게 당을 반대하여 나선 《엠엘파》, 《화요파》를 비롯한 종파 분자들을 대중적 투쟁을 통하여 철저히 청산하였으며 당의 통일과 단결을 고수하는 데서 거대한 승리를 달성하였다.

장구한 기간 우리 나라 로동 운동과 공산주의 운동에 막대한 해독을 끼쳐 온 종파주의는 1958년 우리 당 제 1 차 대표자회를 계기로 완전히 청산되였으며 전 당이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튼튼히 결속되고 전체 당원들이 당 중앙 위원회와 같이 숨 쉬고 움직이며 생각하는 당'적 사상 체계가 철저히 확립되였다.

이에 기초하여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당 제 4 차 대회에서 조선 공산주의 운동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력사적인 위업이 달성되였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당 내에서 반당 종파 분자들을 철저히 청산하고 당의 통일과 단결을 고수하기 위한 견결한 투쟁과 거기에서 달성한 거대한 승리, 이것이 바로 가렬한 전쟁의 시기에도, 전후 복구 건설의 시기에도 우리 당이 수 많은 어려운 고비들을 넘고 우리 인민을 령도하여 확고한 승리를 보장할 수 있게 한 결정적 담보로 되였다.

김 일성 동지는 당 핵심을 육성하고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며 맑스-레닌주의 교양을 강화하는 것을 우리 당 건설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로 제기하였다.

우리 당이 대중적 정당으로 급속히 발전하는 행정에서 아직 공산주의자로 준비되지 못한 수 많은 선진적 근로자들이 당 대렬에 들어 오게 되였다.

우리의 혁명 과업은 광범한 근로 대중의 선진 분자들을 당의 대오에 망라시켜 교양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또 우리 당은 그들을 받아 들여 능히 공산주의자로 키울 수 있었다.

당 핵심을 육성할 데 대한 문제는 전체 당원들을 공산주의자로 교양 육성함에 있어서 제기된 중요한 방침이다.

물론 맑스-레닌주의당은 그 자체가 로동 계급의 핵심적 부대이다. 그러나 당원들의 수준 상 차이가 불가피하게 존재하는 조건에서 보다 준비된 당원들이 지도적,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응당한 일이다. 더우기 우리 당처럼 당원들의 구성 성분이 복잡하고 한 세포 내에서도 그들의 수준이 각이한 실정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김 일성 동지는 이미 1948년 1월에 있은 북조선 로동당 평안 남도 순천군 당 대표회에서 당 핵심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도들을 제시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는 당의 적극 분자들로써 매개 세포의 핵심을 꾸리고 핵심 대렬을 부단히 확대하며 그들이 자기의 실지 모범을 통하여 전체 당원들의 정치 사상 의식과 당'적 각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하여야 하겠다…그리 하여 각 세포의 핵심이 세포 사업을 개선하며 전체 당원들의 당 생활을 강화하고 그들의 당성을 제고하는 데서 주동적 역할을 하도록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선집 제 2 권, 36 페지)

전체 당원들을 빠른 시일 내에 열렬한 공산주의 혁명 투사로 키우기 위하여서는 당 핵심을 육성하고 그의 역할을 높이는 동시에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며 그들에 대한 맑스-레닌주의 교양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로부터 김 일성 동지는 당원들의 정치, 조직 생활의 기초인 세포 생활을 강화할 것을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건전한 세포 생활이 없이는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할 수 없으며 당 내의 사상적, 정치적 단결을 보장할 수 없다.》(선집 제 1 권, 360 페지)

또한 미 제국주의자들과 직접 대치하여 있고 국내에서 치렬한 계급 투쟁이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조건 하에서 당원들에 대한 맑스-레닌주의 교양, 특히 계급 교양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 일성 동지는 《북조선 로동당 제 2 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당 사상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로동 계급을 비롯한 근로 인민에게 과거와 현재의 우리 나라 형편과 사회적 계급 관계를 옳게 인식시켜 그들의 계급 의식을 고취하며 계급적 원쑤들에 대한 정치적 경각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다.》(선집 제 2 권, 169 페지)

당원들에 대한 맑스-레닌주의 교양, 계급 교양을 강화할 데 대한 이 교시는 사회주의 진영을 반대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이 더욱 악랄해지고 있으며 우리 혁명의 주력 부대가 계급 투쟁을 체험하지 못한 새 세대들에 의하여 점차 교체되고 있는 오늘에 와서 더욱 큰 현실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당이 대중적 당으로 발전하는 행정에서 우리 당 앞에는 또한 인민적 사업 작풍을 확립할 데 대한 문제가 매우 심각한 요구로 제기되였다.

당 대렬이 급속히 확대되는 과정에서 당 내에 들어 온 적지 않은 사람들은 군중 공작에서 일제의 잔재인 관료주의적이며 형식주의적인 사업 작풍을 발로시키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김 일성 동지는 초기의

로작인 《북조선 공산당 각급 당 단체들의 사업에 대하여》를 비롯한 많은 문헌들에서 관료주의, 형식주의 사업 작풍의 반인민적 본질을 분석하면서 전체 당원들이 군중과의 련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민적 사업 작풍을 체득할 것을 간곡히 교시하고 있다.

《우리는 군중에게 명령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해설하여 주며 군중 속에 깊이 침투하여 그들의 심정을 료해하고 그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에게서 배우며 군중의 벗이 되고 군중과 한 덩어리가 되여 그들을 목적 달성의 길로 이끌고 나아가는 사업 방법을 체득하여야 하겠다.》(선집 제 2 권, 162 페지)

당 창건 초기부터 그렇게도 중요하게 강조된 이 교시들은 우리 당 간부들과 당원들의 사업 작풍과 군중 공작 방법을 개선하고 이미 1930 년대에 확립된 혁명적 사업 방법과 작풍을 전 당에 확립하며 당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당의 군중 로선을 철저히 관철케 하는 강령적 지침으로 되였다.

선집 1,2 권에는 또한 당의 인전대인 민청, 직맹 등 사회 단체들을 조선 실정에 맞게 조직하고 강화 발전시킬 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이 천명되여 있다.

김 일성 동지는 해방 후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에 부합되게 청년 운동의 발전 방향과 그 조직 형태를 규정하였다. 여기에서 특히 공청을 민청으로 개편한 것은 청년 운동의 통일을 보장하고 청년 대중을 당 주위에 집결시키며 그들을 새 사회의 건설자로 교양 육성하는 가장 정당한 조치였다.

우리 나라 청년 운동은 김 일성 동지가 제시한 길을 따라 부단히 발전하여 왔다.

오늘에 와서 우리 나라의 변화된 현실과 청년 운동 발전의 요구에 맞게 민청이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으로 개조된 것은 이 운동이 더욱 높은 발전 단계에 들어 섰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김 일성 동지의 현명한 지도 하에 우리 당이 취한 조직 로선은 실생활을 통하여 그의 정당성이 유감 없이 확증되였다.

우리 당은 국내외 원쑤들과의 치렬한 투쟁과 어려운 혁명 임무를 수행하는 행정에서 더욱 단련되고 세련되였으며 강대한 당으로 자라 났다.

당 대렬의 통일과 단결이 반석 같이 강화되고 전 당에 당'적 사상 체계와 맑스-레닌주의적 령도 체계가 확고히 수립되였으며 당원들의 정치 의식 수준이 훨씬 제고되였다.

당내 핵심 진지가 공고화되고 당원들의 선봉적 역할이 높아졌으며 당과 대중과의 련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밀접하여졌다.

김 일성 동지의 청산리에 대한 현지 지도의 경험을 일반화하는 과정에서 1930 년대에 확립된 혁명적 사업 방법과 작풍이 사회주의 건설의 현실적 조건에 맞게 구현된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이 전 당에 일반화되였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풍파와 난관 속에서도 조선 인민을 확고하게 승리에로 인도할 수 있는 강유력한 맑스-레닌주의 당을 가지게 되였다는 것을 확신성 있게 말할 수 있다.》(김 일성, 《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3, 인민 정권에 관한 문제

우리 나라에서의 인민 정권의 수립 및 공고 발전에 관한 문제는 선집 1,2권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일제의 식민지 통치 기반에서 해방된

조선 인민 앞에는 낡은 통치 기구를 파괴하고 자기들의 요구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우리 조국의 민주주의적 발전에 가장 적합하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 대중의 리익을 대표할 수 있는 새 형태의 정권 기관을 수립하는 것이 혁명 수행을 위한 첫째가는 문제로 제기되였다.

김 일성 동지는 항일 무장 투쟁 시기의 인민 혁명 정부 수립 경험과 해방 후 조선 인민의 정권 수립을 위한 창조적 활동,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기초하여 인민 위원회를 바로 이러한 새 형태의 정권 기관으로 규정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당이 인민 위원회를 조선 인민의 요구에 부합되고 그들의 리익을 대표할 수 있는 새 형태의 정권 형태로 규정한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그것은 인민 위원회야말로 인민의 창의에 의하여 인민 자신의 손으로 수립된 정권이며, 조선 인민의 원쑤인 친일파, 민족 반역자, 지주 및 예속 자본가들을 반대하고 로동 계급을 핵심으로 하는 근로 대중과 전체 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정권이며, 광범한 대중 속에 깊이 뿌리 박고 인민의 요구에 가장 민첩하게 수응하며 인민의 지지를 받으며 그들과 혈연적으로 련결된 정권 기관이며, 낡은 부르죠아 사회의 <의회적 민주주의> 정권 형태인 것이 아니라 악독한 일제 통치의 억압적 국가 기구가 소탕된 자리에 발생한 전혀 새로운 민주주의적 정권 형태이며, 앞으로 우리 인민을 자유롭고 행복하고 부유한, 더욱 고상한 민주주의 사회에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새 형태의 정권이기 때문이다.》(선집 제 2 권, 137 페지)

해방 후 전국 각지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 난 인민 정권 창설 운동은 우리 인민이 인민 위원회를 자기들의 진정한 정권으로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하여 주었다.

조선 인민이 자진하여 선택하였으며 그들의 창의에 의하여 그들 자신의 손으로 창설한 북조선의 각 지방 인민 위원회들은 해방 후 혼란된 정세를 수습하고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그들에게 민주주의적 권리를 보장하는 커다란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리 하여 인민 위원회는 창설된 지 불과 수 개월도 못 되는 기간에 자체의 거대한 우월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 주였으며 인민 대중 속에서 높은 권위와 신망을 얻었다.

그러나 해방 후 우리 조국 남반부를 강점한 미제는 남반부 인민들이 창설한 인민 위원회들을 탄압하고 해산시켰으며 조선 인민이 일치하게 지향하는 통일적 림시 정부 수립 문제도 실현할 수 없도록 방해하여 나섰다.

김 일성 동지는 바로 이러한 조건에서 북반부에서 만이라도 혁명을 전진시키기 위하여 지방 인민 위원회들을 통일적으로, 계획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중앙 지도 기관을 창설할 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1946년 2월 8일에 통일적인 중앙 정권 기관으로서 북조선 림시 인민 위원회가 창설되였다.

북조선 림시 인민 위원회가 창설됨으로써 조선 인민은 력사 상 처음으로 자기의 진정한 혁명적 주권을 가지게 되였으며 자기의 운명을 자기의 힘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게 되였다.

북조선 림시 인민 위원회는 로동 계급의 령도 하에 로농 동맹을 핵심으로 한 각계 각층의 애국적 력량을 망라한 정권이였으며 반제 반봉건적 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할 것을 자기 과업으로 삼은 인민 민주주의 독재 정권이였다.

이 인민 정권의 혁명적 성격과 그 기본 과업들은 《20 개조 정강》에 명백히 표현되였다.

북조선 림시 인민 위원회는 김 일성

동지가 제시한 《20 개조 정강》을 북조선에서 구현하며 제반 민주주의적 개혁들을 철저히 수행하는 위력한 무기로 되였다.

북조선 림시 인민 위원회는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 세력을 숙청하며 력사적인 토지 개혁을 수행하고 중요 산업 기관들을 전 인민적 소유로 전환시켰으며 로동 법령, 남녀 평등권 법령, 농업 현물세제에 관한 법령을 채택하고 사법 및 교육 기관들의 민주화를 단행하였다.

민주 개혁이 실시된 결과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인민 민주주의 제도가 확립되였고 조국 통일의 기초로 될 민주 기지가 창설 되였으며 사회주의 기초 건설을 위한 물질적 조건이 이루어 졌다.

우리 나라에서의 혁명은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의 수행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그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계속하여 사회주의 혁명에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민주주의 혁명 과업이 철저히 수행된 이후에 와서는 혁명을 계속 전진시키며 사회주의 혁명 과업을 수행하는 데로 이행할 데 대한 문제가 일정에 제기되였으며 인민 정권을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하는 무기로서의 프로레타리아 독재 정권으로 발전시킬 것이 요구되였다.

1947년 2월에 조직된 북조선 인민 위원회가 바로 이러한 정권으로 되였다.

김 일성 동지는 북조선 인민 위원회의 성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다:

《…북조선 인민 위원회는 더욱 강화 발전된 인민 민주주의적 정권 기관으로서 우리의 혁명적 과업들을 전국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가강한 투쟁을 계속 전개하는 한편 북조선에서의 민주 개혁의 성과들을 더욱 확대 발전시키며… 점차 사회주의에로 넘어 가는 과도기의 과업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선집 제 4 권, 447 페지)

보다 공고 발전된 정권으로서의 북조선 인민 위원회는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 향상시키며 민주 개혁에서 얻은 성과를 공고 발전시키고 완전 자주 독립 국가 건설의 기본 토대를 튼튼히 하기 위하여 인민 경제 부흥기의 과업을 수행하는 길에 들어 섰다.

그러나 남반부에서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이 더욱 로골화되고 괴뢰 단독 정부를 조작하기 위한 음모가 꾸며진 것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에는 복잡하고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민족 분렬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조성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결정적인 구국 대책으로서 전 조선 인민의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중앙 정부를 창건할 데 대한 새로운 방침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 조선 인민들의 총선거가 실시되였고 1948년 9월 9일에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 창건되였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창건은 우리 인민의 생활에서 력사적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으며 우리 혁명 발전에서 획기적 단계로 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정강》에서 공화국 정부의 대내외 정책과 그 기본 임무를 전면적으로 천명하였다.

공화국 정부는 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으며 또 하고 있다.

공화국 정부는 우선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생활에서 일제 통치의 악독한 결과를 숙청하기 위하여 투쟁하며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을 철저히 진압하였다.

공화국 정부는 또한 국내의 모든 자원을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리용할 수 있도록 유일한 인민 경제 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기초하여 민족 경제와 문화를 적극 발전시켰으며 민족 간부를 대대적으로 양성하였다.

이와 같이 공화국 정부는 인민의 원쑤들을 진압하고 인민 대중에게 진정한 민주주의를 보장하였으며 경제 조직자적 및 문화 교양자적 기능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공화국 정권이 로동 계급의 령도 하에 로농 동맹을 핵심으로 하는 각계 각층 인민의 통일 전선에 기초하고 있으나 그것이 그 어떤 《중간 독재》가 아니라 바로 프로레타리아 독재 정권이라는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의 인민 민주주의 독재도 로동자, 농민 기타 광범한 인민 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며 로동 계급의 령도 밑에 사회주의 혁명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한 형태이다. 우리 정권은 본질 상 프로레타리아 독재이지 결코 다른 어떤 중간 독재로 될 수 없다.》(《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하여》, 3 페지)

공화국 정부의 대외 정책의 기본은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평화를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피압박 민족의 해방 투쟁과 자본주의 나라 근로 인민의 혁명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립각하여 사회주의 국가들과 친선 협조와 단결을 강화하며, 우리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존중히 하고 평등한 립장에서 우리를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정상적인 국가적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공화국 정부는 이러한 원칙에 확고히 의거하여 많은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설정하였고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정책을 반대하여 투쟁하였으며 식민지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하였다.

공화국 정부의 이러한 맑스-레닌주의적 대외 정책은 우리 조국의 국제적 위신을 비상히 제고시켰다.

김 일성 동지는 특히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더욱 충직하자》에서 유고슬라비야의 찌또 수정주의 도당을 규탄하면서 국제 혁명 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며 당원들과 전체 인민들을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킬 데 대한 과업을 제기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여기에서 또한 《민주 진영의 력량이 강하고 전 세계 자유 애호 인민들이 아무리 평화를 념원한다 하여도 전쟁 방화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잘 조직 전개하지 못 하면 평화를 수호해 낼 수 없다.》(선집 제 2 권, 362~363 페지)고 지적하고 평화를 쟁취하기 위하여서는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강력히 투쟁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여기에서 평화를 위한 투쟁과 반제 투쟁을 밀접히 결합시켜야 한다는 우리 당의 일관한 립장이 정연하게 천명되였다.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천명된 우리 당의 인민 정권 로선이 정확하였으며 인민 정권을 제때에 창설하고 강화 발전시킨 당의 조치가 정당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인민 정권은 혁명의 모든 발전 단계들에서 자기 앞에 제기된 과업들을 원만히 수행하였으며 오늘 그것은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당의 위력한 무기로, 조국 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기치로 되였다.

4, 인민 무력에 관한 문제

인민 무력의 창건은 김 일성 동지가 제시한 혁명 로선을 실현하며 우리 혁명을 보위하기 위하여 해방 후 당 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정치적 임무의 하나였다.

혁명 투쟁에서 무력 문제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특히 조선 혁명에서 이것은 해방 전후를 통하여 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기본 문제의 하나로 제기되였다.

해방 후 우리 조국에 조성된 정세와 혁명 발전의 특수성은 북반부의 혁명적 민주 기지를 수호하며 조국의 완전 자주 독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선 인민이 자신의 강력한 무장력을 가질 것을 긴박하게 요구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해방 직후부터 인민 무력을 창건하는 사업을 직접 조직 지도하면서 무력 건설의 명확한 방침과 대책을 제시하였다.

선집 1, 2 권에는 항일 무장 투쟁의 혁명적 애국 전통을 계승하여 인민 무력을 창건할 데 대한, 인민 군대의 계급적 성격에 대한, 조선 인민 자신의 힘으로 현대적 정규군을 육성 발전시킬 데 대한 당의 방침들이 천명되여 있다.

김 일성 동지는 《조선 인민군 창건에 제하여》에서 인민 군대를 창건하는 목적은 조국의 민주주의적 완전 자주 독립을 더욱 촉진하며 북조선의 민주 기지와 민주 개혁의 성과를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보위하며 북조선 인민들의 행복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 지적하였다.

항일 무장 투쟁의 불'길 속에서 이룩된 혁명 전통과 무력 건설의 고귀한 경험은 해방 후 인민군 창건의 튼튼한 기초로 되였다.

이리 하여 해방 후 조선 인민은 인민 무력 건설에서 혁명 군대, 맑스-레닌주의 군대의 전통과 유산을 계승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게 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인민군의 창건이 항일 유격대의 정규군으로의 확대 발전을 의미한다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 인민 군대는 민주 조선의 정규 군대로서 비록 오늘 창건되기는 하지마는 실지로는 오랜 력사적 뿌리를 가진 군대이며 항일 유격 투쟁의 혁명 전통과 고귀한 투쟁 경험과 불굴의 애국 정신을 계승한 영광스러운 군대이다.》(선집 제 2 권, 78~79 페지)

인민 군대는 항일 유격 투쟁에 참가한 애국 투사들을 골간으로 하고 그의 혁명적 애국 전통과 투쟁 경험을 토대로 하여 건설되였다.

우리 당은 장기간의 항일 무장 투쟁 과정에서 단련되고 세련된 항일 빨찌산들을 골간으로 하여 인민군을 조직함으로써 군대 건설에서 가장 어렵고 복잡한 문제인 간부 문제를 성과 있게 해결하였다.

인민 군대는 항일 무장 투쟁의 혁명적인 애국 전통을 계승함으로써 맑스-레닌주의와 불요불굴의 혁명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한 강력한 혁명적 무장력으로 육성되였으며 인민의 리익에 무한히 충실하며 인민을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는 진정한 인민의 군대로 되였다.

혁명 전통의 계승은 인민군을 맑스-레닌주의 군대로, 혁명적 무장력으로 창건 육성할 수 있게 한 정당한 방침이였다.

김 일성 동지는 인민 군대의 계급적 성격을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다:

《…오늘 우리가 창건하는 군대는 조선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 인민의 아들딸들로써 조직되였으며 조선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인민 대중의 행복을 위하여 외래 제국주의 침략 세력과 국내 반동 세력을 반대하여 싸우는 진정한 인민의 군대이다.》
(선집 제 2 권, 77~78 페지)

인민 군대는 자체의 계급적 본질로부터 출발하여 군민 간에 있어서나 관병 간에 있어서 대립이 있을 수 없으며 투쟁 목적과 리해 관계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불패의 통일을 이루고 있다. 군민 일치, 관병 일치는 로동 계급의 군대인 인민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이다.

인민군 건설에서 첫째가는 문제로 나선 것은 그를 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것이였다.

김 일성 동지는 군대 내에서 정치

사상 교양을 강화하고 전체 군인들을 로동 계급의 사상으로, 확고한 계급 의식으로 무장시키는 데 심중한 관심을 돌릴 것을 지적하였다.

자기 사명의 정당성을 깊이 자각하고 혁명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싸우는 군대, 투쟁 목적을 옳게 리해하고 자각적인 규률로 무장한 군대—이러한 군대는 필승 불패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 일성 동지는 **《우리는 군대 내에서 혁명 선배들의 고상한 애국주의 사상을 본 받으며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신뢰하고 단결하는 정신과 용감하고 솔선 실행하는 기풍을 배양하며 강철 같은 규률을 확립하기 위하여 군무자들에 대한 정치 사상 교양 사업을 강력히 전개하도록 하여야 하겠다》**(선집 제 2 권, 80 페지)라고 지적하였다.

인민 군대를 철저한 혁명적 무장력으로 건설 육성할 데 대한 방침은 김 일성 동지의 무력 건설 방침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강대한 무장력을 가진 미제와 직접 대치하고 있는 우리 인민은 **《전략 전술 상으로나 군사 기술 상으로 가장 우수한 군대를 육성》**(선집 제 1 권, 374 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가르쳤다.

당은 인민군을 선진 군사 과학과 최신 기술로 무장시키는 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해방 후 현대적인 정규군을 건설하는 사업에는 허다한 난관과 애로가 가로 놓여 있었다.

김 일성 동지는 현대적 무력 창건의 제반 조건이 갖추어지기를 기다리거나 남이 도와 줄 것만을 바라고 있을 수 없으며 온갖 조건과 가능성을 다 동원하여 어데까지나 자체의 힘으로 자신의 군대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우리 인민은…어느 누가 우리를 독립시켜 주고 우리의 군대를 조직하여 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조선 인민은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군대를 조직하여 통일되고 독립된 민주 조국의 창건을 촉진하여야 할 것이다.》
(선집 제 2 권, 75 페지)

이 원칙은 우리 인민에게 자체의 힘으로 현대적 정규군을 건설할 수 있고 또 건설해야 한다는 신심과 각오를 가지게 하였으며 전 당과 전체 인민이 건군 사업에 온갖 지혜와 힘과 노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할 수 있게 하였다.

김 일성 동지가 제시한 이상과 같은 인민 무력 창건의 방침은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준비된 군사 강령을 구체화한 것이며 맑스-레닌주의 군사 리론의 창조적 적용으로 된다.

이 방침은 우리 당의 군사 로선의 확고한 기초로 되였으며 우리 나라 국방력을 강화 발전시키는 지도적 지침으로 되였다.

김 일성 동지가 제시한 군사 로선의 정당성은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에서 실증되였으며 오늘 우리 인민이 불패의 강력한 국방력을 가지게 된 데서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이 로선의 불패의 생활력은 앞으로 우리 혁명의 승리적인 전진 과정에서 더욱더 명백히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은 김 일성 동지의 령도 하에 군사 문제를 혁명적으로, 창조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전후 사회주의 건설 시기, 특히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5 차 전원 회의에서는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취하여졌다.

김 일성 동지의 발기에 의하여 취하여진 이 모든 조치들, 인민 군대의 간부 군대화, 전체 인민의 무장, 전국의 요새화, 국방 공업의 가일층의 발전, 인민 군대 내 계급 교양 사업의 강

화 등은 우리 당의 혁명적 무력 건설 방침의 빛나는 구현으로 된다. 이리 하여 오늘 우리 혁명의 군사적 지반은 반석같이 꾸려졌다. 전국이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되였으며 우리 인민의 무장력은 불패의 력량으로 장성 발전되였다.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당의 무력 건설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혁명의 전취물을 끝까지 수호하고 우리 혁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사회주의 동방 초소를 굳건히 고수하여 나아갈 것이다.

5, 자력 갱생과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에 관한 문제

선집에 수록된 일련의 저작들에는 해방 후 평화적 건설 시기에 있어서 자력 갱생의 원칙과 그에 기초한 자립적 민족 경제의 건설을 위하여 바쳐진 김 일성 동지의 리론적 및 실천적 활동이 전면적으로 반영되여 있다.

해방 후 우리 인민이 걸어 온 력사의 전 로정은 자력 갱생의 원칙,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의 로선을 견지하고 관철하여 온 로정이다.

우리 당은 벌써 해방 초기에 자력 갱생의 원칙,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의 로선을 혁명과 건설을 위한 주요한 투쟁 원칙과 방도로 제기하였다.

새 사회를 건설하는 길에서 우리 인민이 달성한 모든 성과는 자력 갱생의 원칙,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의 로선이 일찌기 천명되였고 그것이 시종일관 확고히 관철되여 온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자력 갱생—이것은 공산주의자들의 고상한 혁명 기풍이며 철저한 혁명 정신이다.

이것은 자기의 혁명 임무에 끝까지 충실하며 자기의 힘으로 낡은 사회를 전복하고 새 사회를 창조하려는 로동 계급과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 립장이다.

우리 당은 항일 무장 투쟁 시기부터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견지한 자력 갱생의 혁명적 원칙을 해방 후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모든 령역에서 투쟁의 지침으로 삼았으며 모든 것을 이 원칙에 기초하여 해결하여 왔다.

특히 해방 직후에 김 일성 동지가 자력 갱생의 투쟁 구호를 제기한 것은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졌다.

해방된 조선 인민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구된 것은 우리 민족이 남만 못지 않은 우수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민족적 긍지와 자기 힘으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으며 자기 손으로 제 나라를 능히 꾸려 나갈 수 있다는 굳은 자신심을 가지는 것이였다.

새 조국 창건의 위업은 오직 이런 긍지와 신심을 가진 우리 인민의 **«…단결된 힘, 고상한 애국적 열의, 만난을 극복하는 백절불굴의 인내력, 파고 드는 탐구력과 창발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선집 제 2 권, 3 페지)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전투에서도 승리에 대한 신심이 없는 군대는 패전하며 사기가 왕성하고 승리를 확신하는 군대는 반드시 적을 타승하게 마련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혁명 투쟁이나 경제 건설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인민 대중이 자기의 힘을 자각하고 승리에 대한 신심을 가지는 것이다.»**(선집 제 2 권, 31 페지)

특히 김 일성 동지는 강계군 각 정당, 사회 단체 열성자 회의에서 한 연설 «우리는 이 해에 무엇을 하며 어떻게 일할 것인가?»에서 조선 인민은 일제의 혹독한 박해와 압박 밑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자기 나라의 력사와 민족의 슬기를 고이 간직한 우수한 민족이며 어떠한 침략자도 다시는 우리 민족을 정복할 수 없으며 우리 민족은 독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강하고 선진적인 민주 조선을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해방 초기에 김 일성 동지는 또한 자력 갱생의 정신을 발양할 것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많고 난관이 많다. 지금 우리는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 전 민족의 운명을 걸머지고 새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싸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없는 것은 새로 만들어 내며 부족한 것을 참으면서 이를 악물고 모든 난관을 뚫고 나아가야 한다.»(선집 제 1 권, 260 페지)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발기되고 강력히 전개된 건국 사상 총동원 운동은 이러한 정신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을 국가의 주인으로 되게 하는 대책이였다.

이리 하여 자력 갱생의 기치는 해방 직후부터 우리 인민을 혁명의 승리에로 이끄는 투쟁의 기치, 승리의 기치로 되였다.

사회주의 건설에서 자력 갱생의 혁명적 원칙은 무엇보다도 튼튼한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우리 당의 로선에 명백히 구현되였다.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의 로선은 모든 내부적 가능성들을 최대한으로 동원 리용하여 인민 경제를 더욱 빨리, 더욱 훌륭히 발전시키려는 로선이며, 혁명과 건설을 가장 급속히 추진시키려는 로선이다.

해방 후 우리 나라에서는 자립적 민족 경제의 건설이 각별히 날카로운 문제로 제기되였다.

자립적 경제를 건설함이 없이는 나라의 자주적 발전과 독립 국가 인민으로서의 경제 생활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었으며 국제 관계에서 완전한 평등과 자주권을 실현할 수도 없었다.

선집 제 1 권, 제 2 권은 바로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의 로선이 해방 직후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어떻게 제기되였으며 투쟁의 첫 시기에 그것이 어떤 구체적 조건 하에서 실현되여 나갔으며 우리 인민이 어떤 성과와 경험을 이룩하였는가 하는 것을 명료하게 보여 주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북반부에 혁명적 민주 기지를 창설하는 첫 시기에 우리 나라에서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에 관한 문제를 혁명 승리를 위한 기본 문제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민주주의 독립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자기 민족의 자립적 경제의 기초를 확립하여야 하며 자립 경제의 기초를 확립하자면 인민 경제를 급속히 발전시켜야 한다. 자립적 경제의 기초가 없이는 우리는 독립도 할 수 없고 건국도 할 수 없고 또한 살아 갈 수도 없는 것이다.»**(선집 제 1 권, 317 페지)

우리 나라에서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것은 경제와 문화의 심한 락후성, 민족 간부와 경제 건설 경험의 결핍, 자재와 원료, 자금의 부족을 극복하면서, 그리고 치렬한 계급 투쟁의 환경 속에서 이 과업을 해결하여야 하였기 때문이다.

선집 1, 2 권에는 자립적 경제의 기초를 건설하기 위하여 명백한 투쟁 방향과 현실적인 투쟁 목표를 제시하고 강력한 조직 지도 사업과 사상 교양 사업을 통하여 대중을 확신성 있게 인도한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이 론증되고 있다.

우리 당은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 과업들을 철저히 해결함으로써 봉건주의의 잔재와 식민지적 예속의 경제적 지반을 허물고 공업과 농업이 유기적 련계 밑에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으며 인민 경제의 복구 발전을 위한 투쟁을 전국 사상 총동원

운동과 결합시켜 강력히 추진시켰다.

당은 우선 온갖 내부 력량을 남김 없이 동원 리용하여 경제의 식민지적 편파성과 기형성을 퇴치하는 데 주력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북조선 로동당 제 2 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정강》을 비롯한 수 많은 저작들에서 당의 경제 정책을 천명하였으며 부흥기의 난관과 그의 극복 방도를 구명하고 있다.

민족 경제의 부흥 발전을 위한 과업을 제시하면서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당 경제 정책의 기본은 중요 산업 부문들과 철도, 운수, 체신, 대외 무역, 금융 기관 등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계획적 관리를 보장하며 인민 경제의 발전에서 국영 부문의 지도적 역할을 부단히 강화하는 기초 우에서 협동 조합 부문과 개인 경리 부문을 옳게 결합시키는 것이라고 천명하였다.(선집 제 2 권, 143~144 페지 참조)

선집 1,2 권에는 부흥기에 가장 어려운 문제로 제기되였던 민족 기술 간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당이 취한 조치들이 포괄되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현재 우리의 민주 건설 사업에서 모든 문제의 초점은 결국 인재 문제이다. …특별히 기술 인재에 있어서 그러하다. 만일 우리가 민족 간부를 속한 기간 내에 양성하지 못 한다면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큰 난관에 부닥치게 될 것이며 한 걸음도 앞으로 전진할 수 없을 것이다.》**(선집 제 1 권, 267~268 페지)라고 강조하고 기술 간부 문제를 대담하게 창조적으로 해결할 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였다.

이 방침에 따라 우리 당은 기술 인재에 대한 현실적 수요와 전망적 수요를 정확히 타산한 기초 우에서 한 방면으로는 대학과 기술 전문 학교를 대대적으로 확장하고 다른 방면으로는 생산 현장에서와 각종 강습 체계를 통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다 리용하여 기술자, 전문가들을 길러 내는 데 최대의 힘을 기울였다.

김 일성 동지는 《국영 기업의 계획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1947년 인민 경제 발전 계획에 관하여》, 《2 개년 인민 경제 계획의 수행은 조국 통일의 물질적 담보》 등에서 인민 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며 특히 국영 공업의 계획적 관리 운영 체계를 확립한 우리 당의 경험을 개괄하고 있다.

이 문헌들에는 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킬 필요성과 가능성이 심오하게 론증되고 경제의 계획적 관리 운영 원칙과 그 방도가 밝혀져 있으며 계획 경제의 우월성을 발양시키기 위한 과업들이 명시되고 있다.

북반부에서는 해방 후 불과 1 년 5 개월의 짧은 정리 수습의 시기를 경과한 후 1947년부터 우리 인민의 력사 상 처음으로 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는 길에 들어 섰다. 1947년과 1948년에는 단일 년도 계획이 수행되였으며 그 다음에는 1949~1950년 2 개년 인민 경제 계획이 작성되였다.

전쟁 전 계획들은 공장들을 급속히 복구하고 경제 발전의 속도를 높이며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식민지적 편파성을 퇴치함으로써 자주적인 민족 경제의 건설을 촉진하는 동시에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용 필수품들을 많이 생산할 것을 예견하였다.》**(선집 제 2 권, 333 페지)

선집 1,2 권에는 이 시기에 우리 당이 진행한 다양한 활동과 우리 인민이 전개한 창조적 투쟁이 전면적으로 담겨져 있다.

우리 당은 전 당을 발동시켜 광범한 인민 대중 속에서 사상 사업을 강력히 전개하고 증산과 절약, 기술 습득을 위한 대중적 투쟁을 조직하여 첫 계획들의 승리적 수행을 보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 인민 경제는 높은 속도로 발전하였으며 경제의 식민지적 편파성을 퇴치하는 분야에서 일련의 성과가 달성되였다.

1946년 공업 생산을 100으로 할 때 1947년에는 153.3, 1948년에는 217.9, 1949년에는 336.7로 장성하였으며 1949년에 알곡 생산은 1944년에 비하여 109.8%로 장성하였다.

특히 과거에 거의 없던 기계 공업과 경공업은 1949년에 일제 시대의 최고 수준을 각각 246.9%, 152.7%로 현저히 초과하였다.

첫 인민 경제 계획들이 성과적으로 수행된 결과 사회주의 경제 부문의 지배적 역할과 로동 계급의 령도적 지위가 강화되였으며 혁명적 민주 기지가 일층 공고화되였다.

우리 당은 이 행정에서 더욱 단련되고 경제 건설을 정확히 지도할 줄 아는 당으로 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다른 민족에 못지 않게 자기 나라를 제 손으로 훌륭히 건설할 수 있다는 높은 민족적 긍지와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되였다.

이리 하여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의 길을 따라 더욱 힘 있게 전진하여 승리할 수 있게 되였다.

김 일성 동지의 지도 밑에 우리 당은 조국 해방 전쟁의 준엄한 시기에도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축성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그의 준비를 계속하였으며 전후 시기에 그것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다.

전후 경제 건설에 관한 우리 당의 기본 로선은 해방 직후에 천명된 자력 갱생의 원칙,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의 방침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며 그의 관철은 나라의 경제 건설과 인민 생활 향상에 관한 문제를 가장 정확히 해결하는 열'쇠로 되였다.

당의 정확한 령도와 우리 인민의 비상한 로력적 열의가 결합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전후 3 개년 계획 기간에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가 기본적으로 축성되였으며 5 개년 계획 기간에는 그것이 튼튼히 다져졌다.

김 일성 동지는 해방 직후에 우리 당이 천명하였고 일관하게 견지하여 온 자력 갱생의 원칙과 그에 기초한 자립적 경제 건설의 로선이 우리 나라의 발전과 우리 인민의 생활에서 가지는 거대한 의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는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의 로선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만 짧은 기간에 낡은 사회에서 넘겨 받은 락후성을 청산하고 우리 나라를 강력한 사회주의적 공업-농업 국가로 전변시킬 수 있었으며 나아가서는 나라를 더욱 부강하게 하고 인민 생활을 유족하게 만들 수 있는 자체의 공고한 경제적 지반을 닦을 수 있었다.》(《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당면 과업에 대하여》)

자립적 민족 경제의 성과적 건설은 북반부 민주 기지를 비상히 강화하였으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였다.

공화국 북반부에 축성된 자립적 민족 경제의 튼튼한 토대는 우리 당이 조선 혁명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조국 통일을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는 물질적 지반으로 되고 있다.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함으로써 우리는 또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와 평등,호혜의 원칙에서 형제 나라들과의 경제적 협조를 강화하고 국제적 분업을 더욱 심화 발전시킬 수 있게 되였으며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강화하는 데 더욱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였다.

생활은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작정된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의 로선이 우리 나라에서 혁명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유일하게 정확한 길일 뿐만 아니라 혁명 투쟁에서 민족적 임무와 국제적 임무를 정확히 결합시키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발전에 기여하는 견지에서 보아도 가장 정당한 맑스-레닌주의적 로선이라는 것을 힘 있게 확증하여 주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자력 갱생의 기치 밑에 자립적 민족 경제를 더욱 튼튼히 축성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촉진하고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과의 협조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승리를 위한 위업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6,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관한 문제

선집 제 1 권과 제 2 권에는 조국 통일을 위한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방침이 천명되여 있으며 해방 후 5 년 간에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인민이 달성한 성과와 경험들이 개괄되여 있다.

1946년부터 1950년까지의 시기는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조선 인민의 강력한 투쟁이 전개된 시기이다. 실로 이 시기는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의 력사적 경험의 견지에서 보나 투쟁에서 이룩한 성과의 견지에서 보나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시기이다.

김 일성 동지는 해방 직후에 우리 당의 조국 통일 방침을 천명하면서 《그것은 외국의 간섭이 없이 남북 조선에서 총선거를 실시하고 조선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며 국가 제도에 대한 문제는 전체 조선 인민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기자는 것》(선집 제 2 권, 429 페지)이라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평화적, 자주적, 민주주의적 원칙에 기초한 우리 당의 조국 통일 방침이 벌써 그 때에 체계화되고 천명되였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우리 당은 이러한 조국 통일 방침이 조선 민족의 리익과 전체 조선 인민의 의사에 부합되며 또 그러한 방도로 통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데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조선의 통일 문제는 단일한 국가, 단일한 민족의 인공적 분렬을 제거하고 정치,경제,문화적 련계를 회복하는 문제로서 그것은 전적으로 조선 인민의 내정에 속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조선 문제는 오직 조선 사람 자신에 의하여 해결되여야 하며 여기에 외국이 간섭할 그 어떤 근거도 없다고 인정한다.

김 일성 동지는 《오늘 조선 문제는 오직 조선 사람만이 해결할 수 있으며 조선 인민 외에는 그 누구도 이것을 해결할 능력도 권리도 없다…오직 조선 인민이 자기의 손으로 조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우리만이 이것을 능히 해결할 수 있다》(선집 제2권, 6 페지)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우리 당의 조국 통일 방침은 조선 인민의 민족적 리익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세계의 평화, 특히 극동과 아세아의 평화의 리익에도 완전히 부합되는 가장 정당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의 조국 통일 방침은 남북 조선 전체 인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화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전 세계 인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해방 초기의 여러 저작들에서 조국의 통일 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우리 당의 전략적 및 전술적 방침들을 구체적으로 천명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조선에 대한 미 제국주의자들의 정책의 침략적 본질과 2 차 대전 후 조성된 국제 국내 정세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 기초하여 북반부를 조국 통일의 불패의 기지로 꾸리며 남조선에서 로동 계급과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애국 력량들의 반미 통일 전선을 강화하며 국제 혁명 세력에 튼튼히 의거하고 국제적 규모에서 모든 반미 세력과 련합하여 투쟁하는 것을 조국 통일을 위한 당의 전략적 방침으로 규정하였다.

우리 당은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의 전 행정에서 이 방침을 확고히 견지하고 매 시기 조성되는 정세의 변화에 따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전술적 방침을 제기하여 통일을 촉진시켜 왔다.

선집 1, 2 권에는 해방 후 첫 시기에 있어서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계획을 반대하며 그들이 남조선에서 감행한 단독 선거와 괴뢰 정부의 조작을 반대한 조선 인민의 투쟁이 반영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 문제를 조선 인민 자신의 손으로 해결하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고 조선 문제를 비법적으로 《유엔》에 끌어 가 드디여 1948년 5월에 남조선에서 반동적 단독 선거를 획책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 나라의 분렬은 더욱 심각화되였으며 남조선은 미제의 완전한 식민지로 굴러 떨어질 위험이 조성되였다.

이 때 우리 당의 발기에 따라 1948년 4월에 남북 조선 정당 사회 단체들의 대표자 련석 회의가 소집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이 회의에서 한 보고 《북조선 정치 정세》에서 우리 조국을 량단하려는 미제의 기도를 폭로하고 조국의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침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민족적 력량의 통일과 단결을 이룩하며 망국적 단독 선거를 단호히 거부하고 통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에로 남북 조선 전체 인민들을 힘있게 불러 일으켰다. 이 련석 회의에는 남조선의 좌익 정당들과 함께 중간파 및 다수 우익 정당의 대표들도 참가하였다.

련석 회의는 《유엔 조선 위원단》이 미제의 식민지 략탈 정책의 도구이라는 것을 철저히 폭로하였으며 전체 조선 인민이 단독 선거를 반대하며 그에 의하여 조작되는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하였다. 회의는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을 제외한 전체 조선 인민이 미 제국주의의 침략 정책을 반대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 주었으며 미제와 반동 세력이 남조선 인민 대중 속에서 철저히 고립되여 있음을 보여 주었다.

회의는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과 민족 분렬 정책을 반대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서는 정견이 서로 다른 애국적 정당들이 공산주의자들과 능히 단결할 수 있으며 힘을 합하여 공동으로 구국 투쟁을 전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것은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완강히 투쟁하고 있는 조선 인민에게 있어서 오늘도 거대한 현실적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조선 인민의 거족적 항거에도 불구하고 미제는 무력으로 《선거》를 강행하고 괴뢰 정부를 날조하였으며 사태를 극도로 악화시켰다.

《남조선에서의 단독 선거의 실시와 괴뢰 정부의 수립은 조선의 인공적 분렬을 영구화하려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술책》(선집 제 2 권, 425 페지)이였다.

이러한 정세에 대처하여 우리 당의 발기에 의하여 1948년 6월에 남북 조선 정당, 사회 단체들의 지도자 협의회가 다시 소집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이 회의에서 한 보고 《남조선 단독 선거와 관련하여 우리 조국에 조성된 정치 정세와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 대책》에서 지체 없이 남북 조선 총선거를 실시하고 통일적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창건하며 민주주의적 중앙 정부를 수립할 것을 제기하였다.

이 조치의 정당성은 남북 조선 전체 인민의 열광적인 지지에서 표현되였다.

김 일성 동지가 제시한 방침에 따라 1948년 8월 25일 남북 조선 전 지역에서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총선거가 실시되였으며 조선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인 최고 립법 기관과 정부가 수립되였다.

공화국의 창건은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제기된 자주적 조국 통일 방침의 정당성과 거대한 생활력을 완전히 확증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창건과 함께 통일된 독립 국가 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 서게 되였다.》(선집 제 2 권, 426 페지)

이 때부터 조선 인민은 자기의 국가 주권을 가진 당당한 인민으로서 공화국의 정치 경제적 기초를 튼튼히 하면서 조국의 통일을 촉진하기 위하여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국토 완정과 조국의 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강력히 전개하기 위하여 1949년 6월에는 남북 조선 71 개의 정당 사회 단체들을 망라한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이 결성되고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할 데 대한 방책을 다시 제기하였다.

특히 최고 인민 회의는 1950년 6월에 남북 조선의 립법 기관을 련합하는 방도로 통일을 이룩할 데 대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미제와 그 주구들은 이 모든 제의를 덮어 놓고 거부하고 북반부를 무력으로 정복하기 위하여 동족 상쟁의 전쟁을 도발하였다.

우리 당의 지도 하에 공화국 정부는 전후 시기에 있어서도 계속 평화적, 자주적, 민주주의적 원칙에 기초한 조국 통일 방침을 견지하고 투쟁하였다. 공화국 정부는 거듭 조국 통일을 실현하는 전 행정의 순차와 매 단계에 있어서 해결할 구체적 과업들에 대한 자기의 립장을 상세하게 천명하였다.

조국 통일 문제에서 선결 조건은 남조선으로부터 미제 침략 군대를 철거시키는 것이다.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킴으로써만 자주적으로 통일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조성되며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

공화국 정부는 조선에서 긴장 상태를 완화시키고 남북간의 신뢰를 두터이 하기 위하여 남북 간에 평화 협정을 체결하며 군대를 각각 10만 이하로 축소시킬 것을 수차 제의하였으며 그 다음에는 경제 문화의 교류와 협조를 실현하고 더 나아가 련방제를 실시하여 통일의 길을 한걸음 한걸음 개척하여 나아갈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모든 제의는 해방 직후에 이미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천명된 우리 당의 조국 통일 방침을 변화된 새 정세에 부합되게 구체화하고 발전시킨 것이다.

공화국 정부의 이 모든 조치는 우리 인민의 일치한 의사를 반영한 것으로서 남북 조선 인민과 전 세계 진보적 인류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의 극소수 반동들만이 공화국 정부의 모든 제의를 계속 거부하고 무력으로써 외세의 간섭에 의하여 그리고 인민의 의사를 무시하면서 조선 문제를 해결하려고 광분하고 있다.

남조선의 력대 위정자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오늘 박 정희 도당도 미제의 식민지 통치를 떠 받들고 조선 인민이 일일 천추로 갈망하는 조국의 통일을 가로막으려 하고 있으며 동족 상쟁의 비극을 재연시키고 민족의 분렬을 영구화하려고 광분하고 있다. 이러한 기도가 전체 조선 인민들로부터 일치하게 배격 당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오늘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 대중 속에서는 자주, 자립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으며 자주적 통일의 기운이 더욱더 비등되여 가고 있다.

사태 발전의 모든 행정은 해방 직후에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천명된 조국 통일을 위한 우리 당의 방침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확증하고 있으며 통일을 위한 투쟁이 비록 우여곡절을 거치고 있으나 우리 당의 방침에 기초하여 통일이 실현될 날이 더욱더 가까와 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 당의 조국 통일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북반부의 사회주의 력량과 남조선의 애국적 민주주의 력량의 단결을 이룩하며 전 민족이 단합하여 미제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 때 조국의 통일 위업은 반드시 성취되고야 말 것이다.

* *

김 일성 선집 제 1 권, 제 2 권은 해방 후 평화적 건설 시기에 있어서 맑스-레닌주의를 조선 땅에 구현하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 경험을 집대성한 승리의 기록이다.

선집 1, 2 권은 당과 인민이 굳게 단결하여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극복하지 못할 난관이 없으며 우리는 언제나 빛나는 승리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선집의 심오한 연구는 우리 당의 사상, 우리 당의 투쟁 력사와 투쟁 경험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맑스-레닌주의에 기초한 통일과 단결을 더욱 강화하는 위력한 담보로 된다.

로동당원들과 우리 인민은 선집 1, 2 권을 깊이 있게, 체계적으로 연구하여야 하며 그것을 오늘의 현실적 조건과 결부시키고 맑스-레닌주의 원전들과 결부시켜 학습하여야 한다.

선집 1, 2 권에 체현되여 있는 우리 당의 사상과 우리 당 전략 전술의 진수를 깊이 파악할 때 우리는 조선 혁명을 더욱 전진시키고 우리 민족의 가일층의 번영과 륭성을 실현하는 데서 보다 큰 승리를 달성할 수 있다.

모두다 우리 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맑스-레닌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선에서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자.

사회주의 상업 발전에서의 획기적 조치

김 세 봉

최근 당과 정부에서는 발전하는 새로운 현실에 상응하게 상업 체계를 개편하고 상품 류통 사업을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한 획기적 조치를 취하였다.

이것은 인민 소비품 생산에 화력을 집중하여 최단 기간 내에 우리 인민들의 생활을 사회주의 시대의 요구에 맞게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우리 당의 방침을 성과적으로 실현하며, 도시와 농촌, 공업과 농업 간의 상업적 련계를 더욱 강화할 데 대한 사회주의 건설의 당면한 요구의 성과적 해결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 조치는 실로 우리 나라 사회주의 상업의 발전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된다.

1

인민 경제의 중요 구성 부문의 하나인 상업은 자체의 고유한 체계를 가지고 사회주의 공업과 농업에서 생산된 각종 상품들을 주민들에게 공급하며 생산과 소비, 도시와 농촌, 국내 각 지역 간의 경제적 련계를 실현한다.

생산의 발전과 주민 수요의 장성에 적응하게 상업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그 활동을 사회주의적 원칙에서 부단히 완성하는 것은 인민 경제 발전과 상품 공급 사업의 개선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상업 체계 확립에서의 기본 문제는 도매 상업과 소매 상업 간, 상업 행정 기능과 관리 기능 간의 호상 관계를 옳게 규정하며 상업에 대한 국가적 지도와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상품 운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경영 활동을 부단히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다.

당은 사회주의 상업을 창설한 첫 시기부터 혁명 발전의 매 단계에서 조성된 구체적 환경에 적응하게 상업 체계를 부단히 개선 정비하여 왔다.

력사적인 우리 당 중앙 위원회 1958년 6월 전원 회의는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승리하고 국내 시장에서 사회주의 상업의 유일적 지배가 확립된 조건에서 사회주의 상업의 본질에 적응하게 상업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 정비하는 대책을 강구하였다.

당은 소매 상업에서 불필요한 중간 단위들을 제거하고 독립 채산제에 기초한 종합 상점 체계를 창설하였으며 도매 상업을 국가가 유일적으로 장악하는 원칙에서 중앙으로부터 시, 군에 이르기까지 각종 형태의 도매 상업망을 조밀하게 포치하였다.

도시 및 로동자 지구에서의 종합 상점 체계의 확립은 상업 활동의 기본 단위인 상점 사업을 강화케 함으로써 주민들에 대한 상업적 봉사를 현저히 개선하게 하였으며 또한 국가 유일 도매 상업 체계의 창설은 상품 운동 전반에 대한 국가의 조절적 역할을 강화하고 상품 운동의 민활성과 기동성을 보장케 하였다.

그 후 당은 농촌에서 소비 협동 조합 상업을 협동 농장의 직접적인 관리 하에

넘김으로써 매개 협동 농장 단위로 생산, 분배, 류통을 호상 유기적으로 련결시킬 수 있게 하였으며 농업 생산을 자극하고 농촌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킴에 있어서 크게 기여할 수 있게 하였다.

상업 체계의 이러한 개편은 5 개년 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데 적극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7 개년 계획의 첫 3 년 간 상품 류통 부문 앞에 부과된 임무의 성과적 수행을 확고히 보장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적 생산이 더욱 발전하고 생산과 상업, 도시와 농촌 간의 련계가 더욱 복잡해졌으며 상업 활동의 범위와 내용이 확대되고 상품의 품종 구성이 다양해진 오늘에 와서는 사정이 달라졌다.

현시기 상업 부문 앞에 조성된 새로운 환경은 상업 체계를 가일층 개선 정비할 것을 긴절한 문제로 제기하였다.

우리 당은 바로 이러한 객관적 요구와 상업 체계 조직의 현재 형편을 과학적으로 타산한 데 기초하여 도매 상업을 중앙에서 관리하고 소매 상업은 지방에서 관리하는 원칙에서 도매 상업과 소매 상업을 분리하는 한편 상업 지도 기관들의 행정적 기능과 관리 기능을 분리하여 그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에서 상업 체계를 개편할 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였다.

당의 이 방침에 의하여 공화국 내각에서는 상업성을 강화하여 그로 하여금 국내 상업 전반에 대한 행정 기술적 지도와 함께 도매 상업을 직접 관리 운영케 하고 도 인민 위원회는 도내 소매 상업에 대한 행정 기술적 지도와 도매 상업 활동에 대한 통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기본을 두게 하였으며 시, 군 인민 위원회는 소매 상업에 대한 지도 관리 기능을 직접 담당 수행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리 하여 상업성에서는 전문화된 행정 부서들을 강화하고 도매 상업 총국을 조직하여 중앙 도매소와 출하 도매소 및 도 도매 상업 관리국을 통하여 지구 도매소를 관리하게 하고, 도 인민 위원회에는 도내 상업에 대한 행정 기술적 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상업국을 조직하였으며 시, 군 인민 위원회들에는 상업 행정 부서인 상업처와 그에 직속하는 기업 관리 단위인 상업 관리처를 조직하여 소매 상업 전반을 직접 관리 운영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도매 상업과 소매 상업을 분리하여 도매 상업은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고 소매 상업은 지방에서 관리하며 행정 기능과 관리 기능을 분리 강화하게 한 금번 조치는 현시기 우리 나라 상업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것이다.

원래 소매 상업은 상품 공급의 마지막 환절로서 도매 상업으로부터 상품을 공급 받아 주민들의 생활 상 요구에 적응하게 공급해 주는 상업 활동의 기본 단위이다. 또한 도매 상업은 생산과 소매 상업의 중간에서 활동하면서 생산자로부터 상품을 받아 소매 상업망에 분배 공급해 주는 상품 운동의 조직 환절이다.

그러므로 소매 상업은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실질적으로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하여 상품 공급을 책임적으로 조직하는 데 자기의 모든 력량을 집중하며 도매 상업은 생산자로부터 상품을 류통 령역에 제때에 끌어 들여 그것을 국내 각지에 널려져 있는 소매 상업망들에 합리적으로 조절 공급하도록 하는 데 모든 힘을 기울이도록 되여야 한다.

이러한 요구는 상품 류통의 규모가 확대되고 상품 공급의 내용이 복잡해짐에 따라 더욱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도매 상업과 소매 상업을 분리시켜 각각 그것들의 활동을 전문화하며 도매 상업은 중앙에서

관리하고 소매 상업은 지방에서 관리하게 함으로써만 지방은 소매 상업을 장악하고 상업적 봉사 조직을 더욱 개선할 수 있으며 중앙은 도매 상업을 장악하고 생산자와의 련계를 더욱 밀접히 하며 그에 대한 영향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상품 자원을 유일한 지령 체계에 의하여 기동적으로 움직이며 소매 상업을 위하여 더 잘 봉사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문화에 의해서만 또한 소매 상업은 도매 상업에 대하여 강한 요구를 제기할 수 있고 도매 상업은 소매 상업에 대하여 제멋 대로 상품을 내려먹일 수 없게 한다.

도매 상업과 소매 상업을 분리하여 도매 상업은 성이 직접 담당하고 소매 상업은 지방 인민 위원회 특히 시, 군 인민 위원회가 담당케 한 것은 우가 아래를 도와 주는 원칙에서 중앙이 지방의 소매 활동에 필요한 물질 기술적 조건을 원만히 보장하는 한편 지방 인민 위원회들로 하여금 지방적 특성에 맞게 주민들에 대한 상품 공급을 창발적으로 조직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도매 상업과 소매 상업을 분리하는 한편 중앙과 도, 시, 군에 이르는 상업의 모든 지도 관리 단위들에서 행정 기능과 관리 기능을 분리한 것은 또한 전적으로 정당한 조치이다.

그것은 상업 기업소 경영 활동의 범위가 확대되고 그 내용이 복잡해졌으며 기업 관리에서 구체적인 기술 경제적 타산이 필요하게 된 조건에서 관리 기능을 전문화하여 심화시키지 않고서는 상업 경영 활동 전반을 개선할 수 없게 되였기 때문이다.

행정 단위와 기업 관리 단위를 분리하여 전문화함으로써만 상업에 대한 행정적 지도를 강화하는 일방 기업 관리에서 중앙 집중적 관리 원칙과 우가 아래를 도와 주는 원칙, 정치 사업 선행의 원칙, 계획적인 관리와 독립 채산제의 원칙 등 사회주의적 경영 관리 원칙을 철저히 관철시킬 수 있다.

특히 시, 군들에서의 소매 상업의 기본 관리 단위인 소매 상업 관리처의 조직은 군적인 상업 력량을 소매 상업에 집중케 하며 군적 범위에서 상품 물자 및 화폐 재산을 유기적으로 련결시켜 통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며 잡다한 통계와 업무 계산을 축소시키며 간부 대렬의 질적 구성을 개선하고 그들의 정치 실무 수준을 높이며 모든 상업 단위들의 활동을 같은 목적을 위하여 복종케 하는 등 커다란 우월성을 가진다.

따라서 새로운 지도 관리 체계에 의하여 행정 기능을 담당한 상업성 행정 부서들과 도 인민 위원회 상업국, 시, 군 인민 위원회 상업처들은 계획 및 재정 활동과 로동 행정 사업에 대한 지도를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상업 활동 전반에 대한 통제적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리 기능을 담당한 도매 상업 총국을 비롯한 도 도매 상업 관리국과 시, 군 상업 관리처들에서는 자기의 관리 기능을 더욱 높여 상품 확보, 상품 관리, 상품 공급 및 재정 관리 등 상업 경영 활동을 더 잘, 더 경제적으로 조직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것은 시, 군에 조직된 소매 상업 관리처들의 우월성을 충분히 발양시키는 것이다.

상업 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상업의 지도 관리 분야에서 제기되는 이러한 요구가 관철됨으로써만 상업에 대한 전반적 지도 관리 기능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게 한 계단 높일 수 있다.

금번에 취해진 상업 체계의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농촌 상업을 협동 농장에서 떼여 내서 국영 상업으로 개편한 것이다.

국가가 농촌 상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은 사회주의 시장 문제의 정확한 해결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의 성과적 해결에서도 큰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우리 당은 항상 농촌 상업 문제의 정확한 해결에 심중한 주의를 돌려 왔으며 그를 창조적으로 해결하였다.

금번 조치는 바로 국가가 모든 면에서 농촌을 책임 지고 도와 주는 원칙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게 농촌 상업을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하여 취해진 가장 정당한 조치이다.

지난 시기 농촌 상업을 협동 농장들의 관리 하에 두고 매개 협동 농장 단위로 생산과 분배, 류통을 계획적으로 련결시키게 한 조치는 협동 농장 자체의 경제적 토대를 강화하며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오늘의 형편은 달라졌다.

오늘 농촌 주민들의 생활이 점차 향상되고 그들의 상품 수요가 도시 주민들의 수요에 접근됨에 따라 농촌 상업을 도시 상업의 수준에까지 끌어 올려야 할 문제가 긴절하게 제기되고 있다.

다른 한편 농촌에서 협동 경리가 더욱 확대되고 농업 생산의 기술 공정이 복잡해졌으며 생산의 전문화가 심화됨에 따라 협동 농장들의 생산적 부담이 커졌으며 확대된 협동 경리 전반에 대한 기술 경제적 관리를 더 강화할 데 대한 요구가 비상히 높아지고 있다.

바로 우리 나라 농촌에 조성된 이러한 사정으로 하여 종전과 같이 협동 농장들에서는 상품 류통에까지 심중한 관심을 돌릴 수 없게 되였으며 협동 농장들을 상품 류통의 부담에서 해방시켜 생산 발전에 보다 많은 힘을 집중하도록 할 것이 요구되였다.

그리고 오늘 전 인민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는 국가 상업은 농촌 상업까지 책임 지고 운영할 수 있으리 만큼 강력한 힘으로 자라 났다.

이 모든 것은 국가가 농촌 상업을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객관적 필요성과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건 지어 준다.

농촌 상업을 국가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은 협동 농장들을 상품 류통의 부담에서 해방하고 농업 생산의 장성에 력량을 집중할 수 있게 하며 농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각종 상품들을 더 편리하게 공급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은 생산적 공간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상업적 공간을 통하여 전 인민적 국가적 소유가 협동적 소유를 지원하는 중요한 형태로 된다.

이러한 조치는 우리 당이 국가 축적을 부단히 증대시키고 소비품 생산을 장성시켰으며 가장 높은 사회화에 기초한 국영 상업을 부단히 강화해 온 결과 실현될 수 있었다.

동시에 그것은 사회주의 국가가 모든 면에서 농촌을 적극 도와 그것을 하루속히 도시의 수준에로 끌어 올리며 농촌 주민들의 생활을 로동자들의 생활 수준에로 끌어 올릴 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므로 농촌 상업에 대한 지도 관리를 직접 담당한 도, 시, 군 인민 위원회, 국영 상업 기관들은 당 조직들의 지도 밑에 농촌 상업의 이관 인수 사업을 성과적으로 끝내고 농촌 상업의 수준을 국영 상업의 수준에까지 끌어 올려야 한다.

이에 있어서 특히 농촌에 대한 공급 기지로서의 군의 상업 기관들의 역할을 높이는 문제가 중요하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에 지적되여 있는 바와 같이 군은 자체의 공급 기지를 강화하고 농촌 상업망을 합리적으로 포치하고 상품

배정 사업을 정확히 보장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농촌 주민들에 대한 공업 상품 공급 사업을 원만히 보장할 수 있다.

2

새로운 상업 체계의 개편은 필연코 그에 적응한 상업의 조직과 방법을 요구한다. 상업의 조직과 방법이 안받침됨으로써만 새로운 상업 체계는 자체의 우월성을 원만히 발휘할 수 있으며 상업 활동 전반을 급속히 개선할 수 있다.

상업의 조직과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 방향은 인민들의 수요를 더 잘, 더 편리하게 충족시키기 위하여 상업 활동을 계획적으로 조직하며 경쟁적으로 다채롭게 조직하는 것이다.

상업 활동을 계획적으로 조직한다는 것은 나라의 생산력 발전 수준에 맞게 상품 생산의 구조를 근로자들의 수요 구조에 가장 정확히 적응시키며 생산된 상품을 계획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 일성 동지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문제를 확립한다는 것은 우리의 상업을 계획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주문제란 인민들의 수요에 맞게 상품을 계획적으로 생산하여 계획적으로 분배하기 위한 방법이다.》(1962년 9월 3~4일 도 인민 위원회 위원장 협의회에서 하신 말씀)

주민들의 수요에 맞게 상품을 계획적으로 생산하여 분배하기 위한 수단인 주문제는 계획화 수준을 높이며 상품 공급에서 계획적 원칙을 관철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상품 운동의 모든 단위들에서 주문제를 관철함으로써만 주민들의 수요에 맞게 생산을 계획적으로 조직할 수 있으며, 상품을 주민들의 수요에 따라 계획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주문제를 통하여 도매 상업 기업소는 상업의 대표자로서 인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상품을 더 많이 생산하고 필요 없는 것을 만들지 않도록 생산에 요구를 제기한다. 이렇게 하여 생산의 규모와 구조를 주민 수요의 규모와 구조에 적응시킬 수 있다.

또한 주문제를 통하여 소매 상업 기업소는 인민들의 요구를 대표하여 도매 상업 기업소에 상품에 대한 요구를 제기하며 필요한 상품들을 확보하여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도매 상업 기업소가 소매 상업 기업소에 자기 마음대로 상품을 내려 먹일 수 없게 하며 소매 상업 기업소에서 주민들의 수요에 적응하게 상품을 공급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주문제는 또한 주민들의 요구를 주로 계획 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생산에 제기하여 계획에 정확히 반영케 함으로써 상품의 계획적 생산과 주문에 의한 계획적 공급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된다.

따라서 주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수요가 보다 긴 기간을 두고 앞질러서 타산되여야 하며 또한 생산의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여야 한다.

이에 있어서 도매 상업 기업소들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도매 상업 기업소는 자기가 봉사하는 소매 상업 기업소들과 주민들의 수요를 구체적으로 장악한 기초 우에서 수공급 관계를 맺고 있는 생산 공장, 기업소들에 상품 품종별로 재질, 규격, 색갈, 무늬, 모양 등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주문을 제기하고 그를 관철하도록 해야 한다.

상업 내부 주문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매 상업망에서는 매달 자기 봉사 구역 내 주민들의 수요를 정기적으로 조사 장악한 기초 우에서 상품 재고와 도매소의 상품 보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상품 주문을 도매 상업 기업소에 제기하며 도매 상업 기업소는 제기 받은 주문을 책임적으로 해결해 주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특히 도매 상업 기업소는 소매 상업망에서 상품 주문을 정확히 작성하도록 방조하기 위하여 상품 견본실을 잘 운영하며 도매 상업 기업소 일'군들이 소매 상업망에 직접 나가 주문서 작성을 도와 주는 것이 필요하다.

소매 상업망의 주문서에는 상점에 일상적으로 갖추어 있어야 할 상품을 별구지 말며 또한 도매소 창고에 있는 상품들이 하나도 빠짐 없이 상점 매대에서 판매되도록 주문 품종과 주문 량이 예견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주문제를 관철함으로써만 상업 활동에서 계획적 원칙을 실현하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상품을 계획적으로 생산하여 계획적으로 공급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을 실생활에서 구현할 수 있다.

상업 조직과 방법을 개선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계획적 원칙을 관철함과 동시에 상업 활동을 경쟁적으로 다채롭게 조직할 데 대한 당의 요구를 또한 관철해야 한다.

상업 활동을 경쟁적으로 다채롭게 조직한다는 것은 인민들에게 더 좋은 상품을 더 많이 그리고 보다 편리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상업의 조직과 방법을 경쟁적으로 부단히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사회주의 상업 일'군들의 동지적 협조와 호상 방조에 기초하여 주민들에게 더 잘, 더 편리하게 봉사할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는 사회주의적 경쟁인바 이러한 경쟁은 돈을 벌기 위하여 기만과 사기, 모리, 투기를 일삼는 자본주의 상업에서의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우리 당은 도매와 소매 호상간에 상업 활동을 더욱 경쟁적으로 조직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매 상업 기업소는 자기 봉사 구역 도매 상업 기업소에서 뿐만 아니라 임의의 도매 상업 기업소들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구입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소매 상업 기업소들로 하여금 자기 봉사 구역 내 주민들의 수요에 맞는 상품을 보다 많이 구입하기 위하여 더욱 창발적으로 활동하게 하며 반면에 도매 상업 기업소는 소매 상업 기업소들에서 주문을 더 많이 받기 위하여 상품 구성을 부단히 개선하고 견본실을 잘 만들며 상품 광고 등을 적극적으로 잘 하도록 자극한다.

도매 상업 기업소들은 상품 확보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생산 공장들, 특히 지방 산업 공장들과의 련계를 더욱 강화하고 상품 확보 사업을 신축성 있게 조직하는 한편 지역 간의 상품 교류 사업을 민활하게 조직하는 데 보다 심중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그리고 도매소는 소매 상업망에서 잘 가져 가지 않는 상품들을 제때에 실현하기 위하여 직매 상점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매 상점의 운영은 비단 잘 팔리지 않는 상품들의 실현을 촉진시킨다는 데만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품 통로를 확대하고 도매소가 직접 주민들을 상대로 수요를 연구할 수 있게 한다.

주민들에 대한 상품 공급을 경쟁적으로 다채롭게 조직함에 있어서 주민들에 대한 상품 공급의 기본 단위인 소매 상업망들을 합리적으로 포치하고 다양한 판매 방법과 상품 진렬 및 광고 조직 등을 개선하는 것이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

우선 식료품 상점을 주민 지대에 최대한 접근시키며 공업품 상점은 집중과 전문화를 결합하는 원칙에서 상업망 포치를 계통적으로 개선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봉사를 다양하게 조직할 수 있도록 조건을 충분히 지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주민 지대가 분산되여 있는 농촌 지역과 림산 마을들에는 성냥, 실, 바늘, 칼, 연필, 학습장 등 일용품들을 판매하는 위탁 판매망을 광범히 설치하고 판매 활동을 다양하게 조직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 상 편의를 적극 도모해야 한다.

그리고 농민 시장의 운영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민 시장은 국영 상업을 보충하는 방향에서 그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도록 조직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상품 류통 통로를 최대한으로 확대 정비하는 한편 상점들에서는 상품 품종을 다양하게 조직하며 일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상품 품종을 반드시 구비하는 원칙을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상점에 와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판매 형식을 적극 도입하며 상품 진렬을 풍족하고 문화적으로 할 것이며 신문, 잡지, 라지오, 포스터 등을 통한 상품 광고 사업도 활발하게 조직하여 근로자들의 수요를 자극하고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판매원들 속에서 례절 밝고 친절하며 고객들에게 성심성의로 봉사할 줄 아는 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상점들을 사철 다양한 식료품과 쓸모 있고 멥시 있는 일용품들로써 흥성거리게 하며 상업 일'군들로 하여금 주민들에게 다채롭고 편리하게 봉사하도록 하는 등 사회주의 상업의 우월성을 남김 없이 발양시켜야 한다.

우리 상업을 다채롭게 조직함에 있어서 사회 급양 및 편의 봉사 조직과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사회 급양 부문에서는 식당들을 더욱 문화 위생적으로 꾸리고 민족 료리와 지방 특성에 맞는 각종 음식물 생산에 기본을 두고 품종을 확대하고 질을 높이며 주민들의 식생활에 편리하도록 공급 사업을 개선하는 데 선차적 의의를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편의 봉사 부문에서는 리발소, 목욕탕, 세탁소 등 생활 상 가장 긴요한 업종들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각종 수리, 수선 업종들을 더욱 확대하고 다양한 형식의 봉사 방법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생활에서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상품 류통 자체가 상품 운동을 전제로 하는 만큼 상업 활동의 개선은 수송 조직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상품 수송은 크기와 형태가 서로 다르며 각이한 물리 화학적 속성을 가진 수 많은 상품을 매일과 같이 대도시로부터 산간 오지에 이르는 수백 수천의 상업망들에 각이한 규모로 규칙적으로 운반해야 할 자체의 특성을 가진다. 이로부터 상품 수송은 높은 계획성과 조직성을 요구하며 기동적인 활동을 요구한다. 따라서 상업 지도 관리 단위들에서는 새로 확립된 자체 수송 체계를 강화하고 상품 수송을 면밀하게 계획하고 조직하여 수송 기재의 리용률을 높이며, 우에서 아래에 내려다 주고 도매가 소매에 직접 공급해 주는 송달 공급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상업 기관, 기업소들에서는 현물에 기초한 경상 경리 제도를 계속 강화하며 상품의 입출고와 보관 관리 사업을 철저히 보장함으로써 국가와 인민의 귀중한 상품 및 화폐 재산에 사소한 손실도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상업 활동 전반을 더 활발하고 다채롭게, 문화적이고 편리하게 조직할 수 있다.

3

인민들에게 더 편리하게 더 잘 봉사

하기 위한 상업 일'군들의 적극적인 활동은 그들의 로동에 대한 정치 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옳게 결합함으로써만 더욱 강화된다.

이것은 오늘 상품 류통의 규모가 확대되고 주민들의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상업 활동의 내용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조건에서 또한 상업 일'군들의 창발적이고 자각적인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조건에서 더욱 중요하다.

우리 당은 항상 상업 일'군들 속에서 로동에 대한 정치 도덕적 자극을 강화하는 데 선차적인 의의를 부여하고 정치 사업을 강화하였으며 상업 일'군들로 하여금 인민을 위하여 성심성의로 복무하는 높은 자각성을 가지도록 하는 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하여 왔다.

상업 일'군들 속에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높은 자각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계급 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 교양과 혁명 전통 교양을 옳게 결합시키는 한편 특히 사회주의 상업의 본질에 대한 교양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 일성 동지는 일찌기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우리 상업은 리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 상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우리 상업은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수단이 아니다. 우리 나라에서의 상업은 근로자들의 물질적,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된다. 따라서 상업 일'군들은 근로자들의 리익을 위한 신성한 사업에 복무하고 있는 것이다.…문제는 상업 일'군들이 자기의 임무를 옳게 인식하고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영예감을 가지며 근로자들을 위하여 헌신 복무하는 데 있다.》(선집 제 5 권, 51~52 폐지)

따라서 상업 일'군들 속에서 사회주의 상업은 근로자들을 기만 착취하는 자본주의 상업과는 달리 본질 상 주민들에 대한 공급 사업이며 인민들의 생활 상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복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과 또한 우리 상업은 산간 오지에까지 다 상점을 차려 놓고 계획적으로 생산된 상품을 계획적으로 날라다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공급하는 것을 기본 사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시켜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모든 상업 일'군들이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영예감을 가지고 자각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그러나 사상 교양을 통한 정치 도덕적 자극 일면만을 가지고서는 일'군들의 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할 수 없다. 여기에는 반드시 물질적 자극이 안받침되여야 한다.

상업 일'군들에 대한 물질적 자극을 강화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로동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하며 로임 지불 형태를 합리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상업 일'군들의 로동에 대한 평가에서 류통 계획 수행과 봉사성의 두 측면을 기본으로 하여 이에 따라 로임을 지불하도록 하는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방침에 의하여 이 번 내각 결정에서는 상업 일'군들에게 일정한 기본 로임을 주고 류통 계획을 초과 수행하며 품종을 확대하고 잘 팔리지 않는 상품을 더 많이 판매하는 데 따라서 추가적인 보수를 주도록 하였다.

이것은 상업 일'군들의 로동이 주로 봉사 로동이며 주민들에 대한 상품 공급이 기본으로 되고 있다는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서 상업에서 로동에 대한 물질적 관심성의 원칙을 가장 정확히 관철할 수 있게 한다.

상품 류통 계획을 초과 수행하며 팔기 힘든 상품을 더 많이 판매하는 데 따르는 로임 지불에서의 차이는 주로 로동의 량적 측면을 고려한 분배 원칙

의 실현이며 상품 품종 수를 확대하고 다양한 상품을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봉사성을 높인 데 따르는 로임 지불에서의 차이는 로동의 질적 측면을 고려한 분배 원칙의 실현이다.

이와 같이 상업 로동의 특성에 맞게 로동의 량과 질적 측면을 고려한 로임의 지불 형태는 상업 일'군들로 하여금 상품 품종을 다양하게 갖추어 놓고 더 많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게 하며 이들의 로력적 열성과 창발성을 더욱 제고시킨다.

그러므로 상업의 모든 지도 단위들에서는 주민들의 구매력과 수요 구조, 상품의 가격 수준, 상품 보장의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상점 별, 작업반 별, 개인 별 상품 류통 계획과 상점들에 일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상품의 품종 수를 정확히 규정해 주며 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를 옳게 하여 로임 지불에서 평균주의를 극복하고 로동에 의한 분배 원칙을 관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일을 더 많이, 더 잘 할 데 대한 일'군들의 열성은 가일층 높아질 것이며 공업과 농업에서 생산되는 상품은 상점들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더 빨리 실현될 것이다.

* *

새로운 상업 체계의 요구에 적응하게 일'군들의 사업 방법을 바로잡는 것은 상품 공급 사업의 개선에서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

지방 당 및 정권 기관 지도 일'군들과 상업 부문 지도 일'군들은 우선 새로운 상업 체계에 의하여 조직되는 상업 기관, 기업소들을 정치 실무적으로 준비된 유능한 일'군들로 튼튼히 꾸리고 그것이 자기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지도를 일층 강화하여야 한다.

상업의 모든 지도 단위들에서는 대안의 사업 체계와 청산리 방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지도를 하부에 접근시키고 군중 속에 깊이 들어 가 그들의 열성과 창발성을 능숙하게 조직 동원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모범 상업 단위를 창조하고 그를 일반화하는 사업을 계속 강력히 추진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당 및 정권 기관 일'군들과 전체 상업 일'군들은 현시기 상업 부문 앞에 제시된 당과 정부의 시책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상품 공급 사업에서 일대 전환을 이룩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건설과 은행 체계의 개편

리 원 경

최근 우리 당은 김 일성 동지의 발기에 의하여 은행 체계를 개편하며 은행 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사회주의 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가일층 제고하기 위한 획기적 조치를 취하였다.

당의 이 조치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종전의 국립 건설 자금 은행이 페지되고 그 사업이 중앙 은행에 이관되였으며 산업 은행이 창설되였다.

은행 체계의 개편에 따라 중앙 은행은 종전까지 수행하던 신용 업무를 그만 두고 생산 및 건설 자금을 유일적으로 공급하며 국가 수입을 받아 들이며 고정 재산에 대한 통제를 실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은행으로 되였으며 산업 은행은 단기 대부, 저금 및 보험 사업과 협동 농장에 대한 재정적 지도 및 통제를 실시하게 되였다.

금번 우리 당이 취한 은행 체계의 이러한 개편은 나라의 경제 생활과 은행 사업 자체의 발전에서 아주 큰 의의를 가진다.

이 조치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의 은행 기관들은 명실공히 인민 경제 전반에 대한 재정적 통제의 중추 기관으로 되였으며 기업소 경영 활동에 주는 자기의 영향을 최대한 강화할 수 있게 되였다.

실로 금번에 진행된 은행 체계의 개편은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은행을 전 인민적인 계산과 통제의 강력한 수단으로 리용할 데 대한 요구를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현 단계에 적응하게 창조적으로 해결하는 획기적 조치로 된다.

* *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의 전 행정에서 은행 문제는 항상 중요하게 제기된다.

사회주의 혁명 수행에서 낡은 은행을 장악하며 그것을 새 사회 건설과 전체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복무하도록 개조하는 것은 정권을 장악한 프로레타리아트 앞에 나서는 기본 혁명 과업의 하나이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대은행들은 사회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되며 또 우리가 자본주의 하에서 이미 만들어진 것을 계승하게 되는 그런 〈국가 기관〉인데 우리의 과업은 여기에서 이 훌륭한 기관을 자본주의적으로 불구화하는 것을 막아 버리며, 그것을 더욱 대규모적으로, 더욱 민주주의적으로, 더욱 총괄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그것이다.》(전집 제 26 권, 119 페지)

사회주의 하에서 은행은 생산과 류통 과정 전반에 대한 전 인민적 계산과 통제의 강력한 공간이며 인민 경제 체계의 중요한 신경절(神經節)을 이루고 있다.

정권을 장악한 로동 계급은 은행을 국유화할 뿐만 아니라 그 사업을 현실 발전에 맞게 부단히 개선 강화하여야만 생산과 분배에 대한 전 인민적인 계산과 통제를 실현할 수 있으며 전반적인 경제 생활을 장악하고 적극적으로 지도하여 나갈 수 있다.

우리 당은 혁명 발전의 매 시기마다 나라의 구체적인 경제 형편에 적응하게 은행 체계와 그 사업을 부단히 개선하여 왔으며 은행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들을 일관하게 실시하여 왔다.

해방 후 민주 개혁의 일환으로 실시된 은행의 국유화와 민주주의적인 새 은행 체계의 확립,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완성에 따르는 은행 체계와 은행 사업의 개선 등은 우리 당이 지난 시기 은행 건설 행정에서 취한 중요한 조치들이였다.

지난 시기 우리 나라에서 은행 기관들이 화폐 류통을 정확히 조절하여 전반적인 경제 생활을 건전하게 하며 사회주의 건설에 필요한 방대한 자금을 원만히 보장하는 데 적극 기여할 수 있은 것도 바로 여기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발전하는 현실은 은행 체계와 그 사업을 더욱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사회주의가 전면적으로 승리하였으며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가 튼튼히 닦아졌다.

대안의 사업 체계가 확립됨에 따라 최근 년간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경제 관리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며 계획화 수준이 비상히 제고되였다.

경제 기관, 기업소들의 사업 체계와 방법이 달라지고 생산과 류통 과정이 째여지게 됨에 따라 생산의 장성과 정상화가 확고히 보장되고 있으며, 특히 자연 조건에 많이 의존하는 채취 공업과 농업 생산이 부단히 앙양됨으로써 이 부문의 생산물을 원료로 하는 공업 부문들에서 경제 활동의 계절성이 결정적으로 극복되고 있다.

이것은 국가로 하여금 경제 기관, 기업소들의 자금 수요를 더욱 정확히 타산할 수 있게 하며, 기업소들에서 자금 수요에서의 불균등성을 최대한 축감시킬 수 있게 하여 준다.

지금 우리 나라 기업소들에서의 자금 수요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볼 때 대체로 균등성을 띠고 있으며 기업소 재생산 과정에서 유리되는 자금도 대략 동일한 규모에서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이리 하여 오늘 인민 경제에 대한 자금 공급과 재정 통제의 수단으로서의 은행 대부는 우리 나라에서 사실 상 큰 의의를 가질 수 없게 되였다. 은행 대부는 다만 기업소들에서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 수요의 일부를 보충하는 수단에 불과하게 되였다.

국가가 기업소의 자금 수요를 시기별, 요소별로 정확히 계획화할 수 있게 되였으며 은행 대부가 자금 수요의 해결과 재정적 통제 수단으로서의 의의를 상실한 지금 인민 경제에 필요한 류동 자금을 종전과 같이 국가 예산 자금과 은행 대부의 두 통로를 통하여 보장할 필요는 없게 되였다.

이제 와서 국가는 은행을 통하여 기업소들에서 요구하는 기본 건설 및 대보수 자금 뿐만 아니라 류동 자금 전액을 유일한 자금 공급 체계에 의하여 보장해 주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농촌 경리의 급속한 발전과 농촌에 대한 국가의 증대되는 지원에 적응하게 협동 농장들에 대한 은행의 재정적 지도와 통제를 더욱 강화할 것을 또한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우리 당이 취한 은행 체계의 새로운 개편은 이와 같이 현시기 우리 나라 경제 발전과 은행 사업 자체 발전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금번 개편된 새 은행 체계는 종전의 그것과는 구별되는 일련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선 새 은행 체계에서는 경제 기관, 기업소들에 대한 자금 공급의 기능이 발권 은행인 중앙 은행에 집중되고 중앙 은행 체계에 신용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 은행 체계가 배합되였다.

이것은 새 은행 체계가 신용 업무를 주로 하는 중앙 은행과 자금 공급 기능을 수행하는 건설 자금 은행으로 구분되여 있던 우리 나라의 종전 은행 체계와는 본질적으로 구별된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자금 공급의 기능이 중앙 은행에 집중됨으로써 은행 기관들은 기관, 기업소들에서 요구하는 자금을 기동적으로, 적시에 보장할 수 있게 되였으며 자금의 효과적 리용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였다.

그것은 또한 종전까지 재정 기관과 은행 기관들이 예산 자금과 은행 대부를 각이한 방법으로 계획하고 공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었던 자금 공급 분야에서의 기관 본위주의를 퇴치하고 기관, 기업소들의 복잡한 부담을 덜어 줄 수 있게 하여 준다.

다음으로 새 은행 체계의 중요한 특징은 은행 사업의 집중화를 강화하면서 은행 기관들의 기업소 현장에로의 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하였다는 데 있다.

은행 사업의 집중화는 사회주의 하에서 은행의 본질과 사명으로부터 제기되는 필수적 요구이다.

은행 사업을 집중화하여야만 은행 기관들이 인민 경제 모든 부문, 모든 기업소들의 재생산 과정을 통일적으로 장악할 수 있으며 유일 체계에 의한 국가 자금의 공급도 성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새로운 은행 체계 하에서는 중앙 은행이 국영 기업소, 기관들의 경영 활동 전반을, 산업 은행이 협동 농장들의 경영 활동 전반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할 수 있게 되였으며 은행의 모든 기능들을 여기에 복종시킬 수 있게 되였다.

그리 하여 은행 기관들은 주로 대부적 공간을 통하여서만 기업소들의 재생산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종전의 부족점들을 완전히 극복하고 기업소 경영 활동 전반에 대한 재정적 통제와 지도를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할 수 있게 되였다.

동시에 은행 기관들은 생산과 류통에 대한 계산과 통제 기관으로서의 자기의 활동 범위를 더욱 확대시킴으로써 나라 살림살이를 보다 잘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자기의 능동적인 역할을 더욱 제고할 수 있게 되였다.

은행 사업의 집중화는 기업소 경영 활동을 정확히 장악할 뿐만 아니라 생산 및 류통 과정에서 걸리고 있는 문제들을 적시에 해결하여 줄 수 있도록 은행 기관들을 현지에 더욱더 접근시킴으로써만 성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사회적 재생산 과정에 대한 은행의 집중적, 통일적 장악과 통제가 원만히 실현될 수 없다.

우리 당은 금번 산업 은행을 새로 창설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은행 사업을 현지에 접근시키는 사업을 더한층 심화시켰다.

새로 창설된 산업 은행은 매개 협동 농장들에 설치한 자기의 출장소들을 통하여 농장의 재정 활동을 지도 통제할 뿐만 아니라 현금 출납, 저금 및 국가 보험 사업과 신용부 사업을 담당 수행하게 된다.

이것은 우리 당이 은행 기관들을 현지에 접근시킬 데 대한 일반적 요구를 우리 나라에서 농촌에 대한 국가의 전면적 지원이 더욱 강화되는 새로운 환경에 맞게 창조적으로 해결하였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산업 은행의 창설은 또한 종전까지 서로 분리되여 진행되던 인민 저금 사업과 보험 사업을 통일적으로 취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수중에 남게 되는 일시적 유휴 화폐 자금을 더욱 효과적으로 동원 리용케 할 것이다.

* *

금번 은행 체계 개편에서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문제는 현실 발전에 상응하게 은행의 기능을 전면적으로 재조절한 것이다.

즉 새-은행 체계에서는 종전 중앙 은행의 주요 기능이였던 대부적 기능이

자금 공급 기능에 의하여 대체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형태의 중앙 은행과 산업 은행이 조직되였다.

우리 나라 인민 경제에서 신용 관계가 자금 공급 관계에 의하여 광범히 대체된 것은 사회주의 하에서 은행 기능 발전의 합법칙적 과정을 반영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 나라에서 인민 경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도로 될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하에서 신용 관계 발전의 전망에도 완전히 부합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 국가는 경제 건설의 매 단계에서 조성되는 구체적 환경과 제기되는 과업에 근거하여 신용 관계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하며 특히 각이한 소유의 기업소들 간에 맺어지는 신용 관계를 잘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건설이 심화 발전되고 인민 경제가 고도로 계획화되며 조직화되는 조건에서 동일한 국가적 소유의 기업소들 간에 이루어지는 신용 관계는 점차 그 의의를 상실하게 된다.

인민 경제에서 전 인민적, 국가적 소유의 확대 발전과 나라의 재정적 토대의 공고화, 기업소 경영 활동에 대한 국가의 지도 관리 수준의 제고는 신용 관계 발생의 조건을 축소시키는 동시에 대부적 방법을 통한 재정적 통제의 필요성도 감소시킨다.

인민 경제에서 신용 관계가 점차 축소됨에 따라 자금 공급 관계가 더욱 전면에 제기된다. 그것은 자금 공급이 신용과는 달리 기업소의 재생산 과정 전반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통제의 수단이며 사회주의 하에서 국가적, 전 인민적 소유의 기업소들 간에 적용되는 전형적인 자금 운동 형태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진척됨에 따라 인민 경제에서 이러한 자금 공급 관계가 부단히 확대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우리 나라에서 은행의 기능이 전면적으로 재조절되고 발권 은행인 중앙 은행으로부터 대부적 기능이 분리되게 된 주요 조건은 특히 기업소 류동 자금 조직에서의 변화와 관련된다.

종전까지 우리 나라 기업소들에서의 류동 자금은 자체 자금과 차입 자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와서 국가는 그것을 유일한 자금 공급 체계에 따라 전액 보장하여 주게 되였다.

이것은 은행 기관과 국가 기업소들 간의 신용 관계를 대폭 축소시킬 수 있는 전제 조건으로 된다.

오늘 우리 나라 인민 경제에서 정상적인 신용 관계는 주로 서로 다른 소유의 기업소들에서만 적용되고 있으며, 국가 기업소들에서의 대부적 수요는 특수한 례외적 현상으로 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발권 은행이 신용 업무를 계속할 필요는 없으며 기관, 기업소들 간에 이루어지는 신용 관계는 대부적 기능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은행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된다.

또한 국가 기업소들에서 류동 자금과 고정 폰드의 확대를 위하여 요구되는 자금 공급 원천이 다같이 국가 예산 자금으로 형성되게 된 것은 이 기업소들에 대한 자금 공급도 중앙 은행이 통일적으로 담당 수행할 수 있게 하여 준다.

물론 기업소의 자금 운동 과정에서는 일시적 성격을 띤 자금 수요와 자금 유휴 현상이 완전히 배제될 수 없다.

그러므로 기업소들에서 요구되는 류동 자금 전액을 국가가 보장하는 자금 공급 체계에로 이행함에 있어서도 일시적인 자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특수한 대책이 강구되여야 한다.

금번 은행 체계의 개편과 관련한 새로운 자금 공급 체계에서는 이러한 경우로 충분히 타산되여 있다. 그것은 기업소의 정상적인 재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수요는 중앙 은행의 조절 폰드로, 기업소 재생산 과정의 개별적 환절이 중단되여 생길 수 있는 자금 수요는 대부적 방법으로 해결하게 한 데서 표현된다.

이와 같이 새로운 자금 공급 체계는 은행 통제를 강화하며 대부 관계와 관련하여 있을 수 있는 자금 대출 상의 부족점들을 제거할 수 있게 한다.

자금 공급이 중앙 은행의 주요 기능으로 되고 대부적 기능이 발권 은행으로부터 분리됨으로써 중앙 은행의 발권 및 화폐 류통 조절 사업에서도 일련의 변화가 일어 나게 되였다.

그 중에서도 사회주의 하에서 화폐 및 화폐 류통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은행권의 성격 상 변화가 일어 난 것은 특히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우리 나라에서 은행권은 원래 화폐 류통 법칙의 요구를 타산하여 신용적 절차로 류통에 방출되였다.

그런데 금번 은행 체계의 개편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에서의 발권은 자금 공급의 원천으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는 산업 은행이 실시하는 대부 업무의 자원적 기초로도 되지 않는다.

중앙 은행권의 발행 업무와 신용 업무의 련계가 단절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의 은행권은 이제 와서 신용 화폐로서의 특성보다 《상징 화폐》로, 금 대리자로서의 성격을 더욱 뚜렷이 가지게 되였다.

중앙 은행권의 이러한 성격 상 변화는 화폐 류통 조직에서 중앙 집권적 발권 제도를 보다 강화하며 현금 류통의 계획적 조절 사업을 개선하며 인민 경제 전반에서의 자금 회전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새로운 은행 체계 하에서 중앙 은행에는 자금 공급의 기능 외에 고정 재산에 대한 등록 감독 기능이 또한 새로 첨가되였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 고정 재산에 대한 등록 감독 사업은 재정성과 내각 물자 총국 등 여러 경제 기관들에서 각이하게 취급하여 왔다.

그러나 금번 은행 체계의 개편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고정 재산에 대한 유일한 지도 통제 체계가 확립되였다.

고정 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지도와 통제 사업이 중앙 은행에 집중된 것은 중앙 은행이 전국 각지에 분포되여 있는 광범한 지점망을 통하여 경제 기관, 기업소들의 경영 활동 전반을 장악하고 지도할 수 있는 《일반적 부기》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또 국가의 자금 공급 사업을 통일적으로 담당 수행한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중앙 은행은 자금 공급 기능을 통하여 기관, 기업소들의 류동 및 류통 폰드 뿐만 아니라 고정 폰드의 운동 특히 그 확대와 관련한 경제 거래들을 취급함으로써 기업소의 고정 재산 관리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장악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기업소 고정 폰드 관리에서 있을 수 있는 기관 본위주의적 현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하며 그 리용의 효과를 제고하도록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를 보장할 수 있게 한다.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제시된 우리 나라에서의 은행 체계 개편의 새로운 방향은 사회주의적 은행 건설 행정에서 거대한 리론 실천적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실로 사회주의가 승리한 이후 시기 은행 문제 해결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 오기 위한 명백한 길을 밝혀 주며 사회주의 하에서의 은행의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제고시킬 수 있게 하는 획기적인 계기로 된다.

우리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에서 금번 은행 체계의 개편이 가지는 의의를 정확히 인식하고 새 은행 체계에 적응하게 사업 방법을 부단히 개선함으로써 은행 사업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은행 기관 일'군들은 자기 활동에서 청산리 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기업소의 경영 활동 전반에 대한 재정적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사회주의 건설에 요구되는 자금을 원만히 공급하며 나라의 재정을 정확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산업 은행 일'군들은 기업소들에서 일시적으로 요구되는 자금을 제때에 정확히 공급할 뿐만 아니라 협동 농장의 재정 관리 사업에 대한 일상적인 지도와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농장의 경제 토대 강화와 농민 생활 향상에 적극 기여하여야 한다.

우리의 모든 은행 기관 일'군들은 은행 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자기들의 온갖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침으로써 우리 나라 은행 체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휘시켜야 한다.

꾸바 혁명과 라틴 아메리카

최 상 순

꾸바 혁명이 승리한 때로부터 1년이 지난 1960년에 한 정치 평론가는 이 혁명을 평하면서 《이 한 알의 씨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가 맺지 못 하는가에 라틴 아메리카의 장래가 달려 있다》고 썼다. 아직 이 때만 해도 꾸바 혁명이 그 앞에 놓인 모든 장애와 시련을 과연 극복해 낼 것인가를 위구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꾸바 혁명이 승리한 때로부터 5년 이상이 지난 오늘에 와서는 모든 사람들, 꾸바 혁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물론, 그것을 증오하는 자들까지도 혁명이 달성한 거대한 성과를 부인할 수 없게 되였다.

꾸바 혁명은 식민지 민족 해방 운동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으며 특히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것은 특별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 하면 꾸바의 오늘은 곧 라틴 아메리카 대륙의 래일이기 때문이다.

《꾸바 혁명은 무엇을 제시하였는가》

제 2 하바나 선언에서는 꾸바 혁명이 《바로 혁명은 가능하며 각국 인민들이 능히 혁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해 주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실에 있어서 꾸바 혁명은 전 세계 피압박 민족들과 특히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에게 압박자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인민에 튼튼히 의거하고 정확한 혁명 로선을 견지하며, 국내외의 반혁명 세력과 견결히 투쟁한다면 혁명은 승리할 수 있으며 민족적 해방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여기에 꾸바 혁명의 가장 중요한 의의가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이미 오래 전에 악명 높은 《몬로주의》로부터 시작하여 《정치 인력 법칙》, 《숙과 정책》, 《선린 정책》 등과 같은 각가지 악랄한 정책을 써 가면서 미국의 리오 그란데 국경에서 페루와 아르젠틴의 남단에 이르는 라틴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철저하게 예속시켰다.

라틴 아메리카는 실로 장구한 기간 정치적으로 미국의 완전한 부속물로, 경제적으로는 미국의 농업적 식민지로 되여 있었으며 그 광대한 부원을 가지고도 부원의 거의 전부를 미국에 략탈 당함으로써 지구 상에서 가장 몽매하고 빈궁한 지역의 하나로 남아 있었다. 미제가 피묻은 딸라로 비대해지면 질수록 라틴 아메리카 대륙은 반비례로 무섭게 메말라 갔다. 실로 미제와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은 서로 상용할 수 없는 첨예한 대립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오래 동안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 모순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해 왔었다. 그들은 《강대한》 미국이 존재하는 한, 미국이 라틴 아메리카 대륙을 내여 놓으려 하지 않는 한 력사적으로 강요된 이 종속 관계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믿어 왔다. 지어 일부 진보적 계층까지도 이러한 관계를 기정의 사실로 인정하는 토대 우에서 자기의 운동을 전개하였는바 그것은 례외 없이 개량주의적인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 하였고 따라서 그 어느 하나도 성공하지 못 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이 대륙에 대한 지배를 영구화하기 위하여 이 대륙, 적어도 서반구에서의 일체 운동은 그 어떤 극한과 같은 선을 결코 뛰여 넘을 수 없다는 반동적인 리론을 부단히 류포시켜 왔던 것이다. 라틴 아메리카의 반동적 과두 세력과 사회 개량주의자들도 이에 보조를 맞추어 미국의 《후원》과 《지지》 없이는 이 대륙이 존재할 수 없다고 설교하면서 인민들을 혁명의 길에서 떼 내며 미제에 대한 저들의 반인민적인 추종 정책을 정당화하려 하였다.

이리하여 라틴 아메리카에서 《북방의 거인》을 무시할 수 있는 시대가 언제 도래할 것이며 또 어떤 힘을 가지고 《강대한》 세력과 대적할 것인가 하는 것은 력사의 과제로 되여 있었다.

꾸바 혁명의 승리—그것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명백한 대답을 주었다.

꾸바의 혁명적 인민들은 그 어떤 기적적인 순간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혁명 정세를 조성하고 대중적으로 일떠서서 혁명을 실행하였다. 그들은 이와 같이 바로 미제의 코 앞에서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라틴 아메리카에서 혁명이 불가능하다고 하던 《신화》를 산산이 부셔 버렸으며 이 대륙에서 혁명 운동의 새로운 불씨를 지펴 놓았다.

무장한 혁명 세력으로 무장한 반혁명을 격파한 꾸바 혁명은 꾸바와 같은 처지에 있는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에서 무장 투쟁이 가능하며 또한 그것이 현실적이라는 것을 증시하였다. 여기에 이 혁명의 력사적 공적의 또 하나가 있다.

꾸바 혁명 승리 이후 카스트로는 오늘 《미 제국주의가 라틴 아메리카를 종속시키고 있고 간섭하고 있는 이상 그들과 미 제국주의자들 사이의 모순이 도저히 상용할 수 없는 것으로서 오직 인민 혁명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은 알고 있다.

또한 미 제국주의와 그 앞잡이들의 파쑈적 탄압이 있는 이상 반혁명의 무력 탄압을 분쇄하기 위해서는 무장 투쟁을 전개하는 외에 다른 길은 없다》라고 말하였다.

사실 상 미 제국주의자들이 경제의 명맥을 틀어 쥐고 있고 국내의 반동적 과두 세력과 폭력으로 혁명을 탄압하고 있는 군벌들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조건에서 부르죠아적 법률의 일부 측면을 리용하는 합법적 개량 운동이나 그 어떤 의회 투쟁으로는 라틴 아메리카의 근본적 사회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오늘 인민들의 해방 투쟁은 물론이고 지어 민족 부르죠아지의 일부 진보적 정책에 대해서까지 미제는 로골적인 간섭을 감행하고 있으며 토착 군대들을 동원하여 공공연한 전복, 탄압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다.

모든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다 그러하지만 특히 라틴 아메리카에서 군대는 극반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지휘부가 이 대륙의 가장 몽매한 반동 세력과 미국 독점체들의 리해 관계와 밀접히 련결되여 있는 이 군대는 미제의 지시에 따라 독자적 정책의 극히 사소한 표현에 대해서도 적대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제는 라틴 아메리카 지배에서 더욱더 군사 독재에 의거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근본적인 사회적 변혁이 대중적인 혁명 운동과 이와 결합된 무장 투쟁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혁명의 지도 세력은 폭력이 정권 전취의 가장 신속한 길, 그리고 사실 상 유일한 방법으로 제기된다면 결코 그것을 두려워 하지 말아야 하며 오직 그 한 길로 과감하게 나가야 하는 것이다. 만일 무장 투쟁을 요구하는 정세가 조성된 때, 무장 혁명이 운동 발전의 객관적 요구로 된 때 그것을 회피한다면 만회할 수 없는 오유로 된다.

꾸바 혁명의 전야에 이러한 정세가 조성되였었다. 폭력에 매여 달리고 있는 독재적인 전제 정치의 위기가 극심하여지고 오래 동안 고통을 당하며 빈궁을 겪어 온 꾸바 인민들은 그 어떤 비싼 대'가를 치르고라도 자신을 해방할 수 있는 길이라면 희생을 무릅쓰고 그것을 향하여 과감하게 나아가려는 혁명적 열정에 충만되여 있었다. 주객관적 정세는 바띠스따 독재 정치의 폭력적 전복을 일정에 제기하였던 것이다.

인민들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상응하게 손에 무장을 들고 독재 정권을 뒤엎었으며 민족 민주주의 혁명을 짧은 시일 내에 완수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혁명 력량이 처음부터 다같이 이 길로 나아간 것은 아니다. 카스트로를 비롯한 애국자들이 1953년 7월 26일 적은 무장 력량을 가지고 대담하게 몽카다 병영을 습격함으로써 무장 투쟁의 불'길을 높이 들었을 때 그리고 그 이후 시에라 마에스트라에서 무장 투쟁을 전개하던 때 일부 사람들은 수정주의 리론에 매달려 이를 소부르죠아 급진주의자들의 모험주의적 행동으로 평가하였다. 그 이후 이들은 이 무장 투쟁이 인민 대중의 절대적인 지지하에 료원의 불'길처럼 확대되고 바띠스따 독재 정권의 붕괴와 혁명의 승리가 명백하게 되였을 때에야 그것을 전술적으로 지지하는 립장을 취하였던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또한 마치도 꾸바 혁명이 《평화적 공존》 하에서의 《평화적 이행》의 실례나 되는듯이 말하고 있다. 그러나 카스트로 수상은 이러한 비속한 리론가들을 비판하면서 《이것은 평화적 이행이 아니다. 그것은 투쟁을 통하여 이룩된 이행이다. 이러한 투쟁이 없었더라면 우리 나라에서 어떠한 이행도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평화적 이행의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지만 그 첫 실례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고 명백히 지적하였다. 꾸바 인민들은 바띠스따 독재 정권을 전복하는 투쟁에서 피를 흘렸으며 그들이 자기의 혁명을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선포한 바로 그 이튿날 플라야히론에 공격을 개시한 미제의 고용군을 반대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싸웠다.

실로 미제와 반혁명을 반대하는 이러한 영웅적인 투쟁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혁명에서 승리하여 정권을 장악할 수 없었을 것이고 철저한 토지 개혁도, 미국 독점체의 재산들에 대한 국유화도 할 수 없었을 것이며 혁명의 전취물도 수호할 수 없었을 것이다. 미제의 거듭되는 발악에도 불구하고 꾸바가 《제 2의 과떼말라》로 되지 않은 것은 그들이 과떼말라에서처럼 반혁명의 공세에 당황하여 자기들의 진지와 혁명적 민주주의적 전취물을 하나 둘 포기하는 데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영웅적 투쟁의 길로, 오직 그 한 길로 나아갔기 때문이다.

꾸바 혁명은 또한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에게 이 대륙에서는 농촌의 혁명 잠재력을 동원할 때만이 승리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여기에 꾸바 혁명의 또 하나의 거대한 의의가 있는 것이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봉건적 대토지 소유제와 미국 독점체들의 억압과 착취로 하여 인구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촌 주민은 도시 로동자들보다 더 가혹한 처지에 놓여 있다. 전 인구의 불과 1.47% 밖에 안 되는 대토지 소유자들이 전 경지의 64.9%라는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농민의 대다수는 토지가 전혀 없다. 농촌 주민들은 농장에서 보잘 것 없는 로임을 받으면서 고용살이를 하거나 혹은 농노제기보다 조금도 나은 것이 없는 그러한 착취적 조건에서 토지를 경작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사정들이 라틴 아메리카 농촌들로 하여금 거대한 잠재적 혁명 력량으로 되게 한다.

철저한 토지 개혁이 혁명의 기본 요구로 되여야 하는 때 농민 운동을 경시해서는 안 되며 그렇게 하여서는 혁명 발전을 촉진할 수 없다.

카스트로를 비롯한 꾸바의 혁명적 지도자들은 토지 개혁에 대한 구호를 제기하고 농촌의 혁명 잠재력을 최대한 활동시킴으로써 혁명의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광범한 력량을 결속시켰던 것이다.

이것은 라틴 아메리카 혁명 운동의 교훈으로 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인민들의 혁명 운동에 대해서도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꾸바 혁명은 오늘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에 대한 혁명적 영향력을 강화하면서 확고하게 앞으로 전진하고 있다. 이미 꾸바는 하나의 외국 재산도 없으며 그 모든 재부, 광산, 석유와 토지, 공장이 인민의 것으로 된 나라로 되였다. 꾸바는 미국 독점 자본가들에게 단 한푼의 리자도 지불하지 않고 모든 재부로써 인민에게 필요한 것을 만들어 내는 아메리카의 유일한 나라이다.

그리 하여 카리브해의 이 섬은 라틴 아메리카 대륙의 앞길을 밝혀 주는 모범으로 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 전 지역이 꾸바와 같이 되고야 말 것이다

꾸바에서의 혁명의 승리와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적 촉진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예속 하에 있는 라틴 아메리카 나라 인민들을 비상히 각성시키고 있다. 그들은 반동들과의 투쟁에서의 승리의 확신을 갖게 되였으며 꾸바 혁명에 고무되여 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일떠섰다.

라틴 아메리카 혁명 운동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 섰다. 혁명 운동이 대중적인 형태를 띠고 앙양되기 시작하였으며 투쟁의 예봉은 직접 미제에게 돌려지게 되였고 무장 투쟁이 운동의 주류를 이루게 되였으며 혁명은 더욱더 광범한 대중적 지반을 갖게 되였다.

미제는 서반구에 몰려지고 있는 이 돌파구에 당황망조하여 꾸바 혁명이 승리한 첫날부터 그것을 압살하며 꾸바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파탄시키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하였으며 또 하고 있다.

꾸바 사탕 수입을 단절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각종 경제적 《제재》와 정치적 압력을 가하였으며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직접적인 무력 침공을 감행하였다. 미국의 이전 대통령이였던 케네디는 꾸바를 없애는 것이 미국의 대외 정책이라고 공공연하게 성명하였다. 꾸바에 대한 미제의 무모한 정책은 날을 따라 더욱 우심해지고 있다. 미제는 《경제적 봉쇄》를 실시하며 꾸바에 대한 범죄적인 간첩 비행을 감행하고 있고 함선과 비행기들을 동원하여 도시와 공장들을 포격하는 야만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13일에도 미제는 플로리다, 푸에르토리코, 중미에 기지를 둔 미 중앙 정보국 소속의 해적선을 파견하여 꾸바의 오리엔떼주 서남부의 필론 항구에 있는 사탕 공장을 포격하였다. 이것은 꾸바의 독립과 자주권을 짓밟고 꾸바를 정복하려는 미제의 강도적 행위이다.

한편 미제는 혁명적 꾸바를 당장 없애 버리지 못 한다면 적어도 라틴 아메리카에서 그 영향력이라도 약화시켜 보려고 꾸바를 철저히 《고립》시키는 정책을 실시하는 일방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사탕과 몽둥이》 정책에 더욱 집요하게 매여 달리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낡은 경제적 및 정치적 지배 방법을 유지하면서 저들의 리해에 전'적으로 복종하며 독자적인 발전의 길을 포기하는 민족 부르죠아지에게 약간의 《양보》를 주는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라틴 아메리카에서 새로운 지탱점을 찾으려고 시도하고 있다.

푼따 델 에스떼에서 제기된 이른바 《진보를 위한 동맹》 및 이를 통하여 약속하고 있는 《원조》, 《토지 개혁》, 커

피나 주석 같은 제품에 대한 미국의 구입 협정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서 어떤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 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낡은 착취 방법을 가장 믿음직한 것이라고 간주하는 미국 독점들이 교활하게도 이에 양의 가죽을 씌운데 지나지 않는 것이다.

미제는 이것으로써 꾸바의 혁명적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없으며 라틴 아메리카 매개 나라들에서 일어 나는 내부적 불만을 무마할 수 없으며 혁명 운동을 결코 막아 낼 수 없다.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에 대한 미제의 예속화 정책은 더욱더 위기에 직면하고 있고 형편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인민들은 더는 종전 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이 나라들에서는 경제의 쇠퇴로 말미암아 실업이 계속 증대되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빈궁화는 가일층 촉진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 로조 통일 대회의 보고에 의하면 라틴 미주에는 약 600만의 실업자가 있다. 경제학자 모랄레스는 지금과 같은 경제의 악화가 계속된다면 15 년 후에는 실업자가 3천 300만에 달할 것이라 했다. 더우기 이에 겹쳐 인플레와 물가의 등귀가 계속되여 근로자들의 생계비는 부단히 올라 가 오늘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6천만 명 이상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으며 영양 부족과 각종 질병들로 하여 해마다 20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다.

이리 하여 인민들의 불만과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고 그들은 자신의 투쟁으로 삶의 길을 찾기 위하여, 착취와 예속, 무권리에서 벗어 나기 위하여 혁명 투쟁에 일떠서고 있으며 이 투쟁은 미제의 온갖 책동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대 발전하고 있다.

오늘 라틴 아메리카 대륙에서 혁명 투쟁이 치열히 전개되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으며 그 모든 경우에 이 투쟁은 광범한 대중들의 참가 밑에 전개되고 있다.

작년 볼리비아 광부들의 총파업에는 전국 광부들 거의가 다 참가하였으며 지난 해 9월 아르젠틴 철도 로동자들의 파업에 의하여서는 전국의 철도 운행이 정지되였으며 금년 3월 브라질의 공업 중심지인 산 파울로시의 강철 로동자들의 파업에는 5만 명 이상이 참가하였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전개되고 있는 모든 투쟁은 바로 미 제국주의자들의 예속과 지배를 반대하고 있으며 자기의 민족적 자주권을 지향하고 있다.

특히 인민의 무장력이 반동적인 군대를 능히 격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꾸바 혁명 이후 라틴 아메리카의 혁명적 인민들은 부르죠아지들이 설교하는 타협이나 위선적인 개량의 길이 아니라 무장 투쟁만이 가장 정당한 혁명의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더욱더 이 길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그들은 도처에서 혁명적 무장력을 조직하고 있으며 인민 대중과의 혈연적인 련계 밑에 투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베네주엘라에서 민족 해방군이 조직되였으며 과테말라, 도미니카, 니카라과, 혼듀라스, 콜롬비아에서도 유격대가 결성되였다. 유격대들은 오늘 국내의 광범한 각계 각층 인민들의 통일 전선에 확고히 기초하고 있다. 베네주엘라에서는 유격대가 공산당을 비롯한 《좌익 혁명 운동》 당 및 기타 야당 세력들을 망라한 반제 민주주의 력량의 《민족 해방 전선》에 기초하고 있고 과테말라에서는 《공동 항쟁 전선》의 지도 하에 있다.

라틴 아메리카 대륙에서 혁명적 무장력은 이와 같이 대중적 지반 우에 튼튼히 서 있음으로써 괴뢰 집단들에 거대한 타격을 가하고 있다.

도미니카에서는 이미 국내의 6 개의 지역에서 유격 활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베네주엘라에서는 유격대들이 팔콘주와 수도 카라카스를 비롯한 약 20 개의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베네주엘라 유격대는 작년 6~9월 간에만도 카라카스에 있는 미국 대사관 관원의 주택, 미국 《군사 사절단》 건물, 미국인 소유 회사 창고, 《베네주엘라의 소리》 방송국, 미국인 소유 송유관, 미국의 《듀퐁》 도료 공장과 수도 중심에 있는 정부군 공군 사령부를 습격하였으며 감옥을 기습하여 620 명의 정치범들을 석방하였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러한 강력한 무장 투쟁의 영향 하에 농민들의 투쟁이 또한 강화되고 있다. 농민들은 더욱 대중적으로 투쟁에 진출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조직화되고 있으며 나아가서 무장 투쟁에 직접 참가하는 한편 이에 적극적인 지원을 주고 있다. 많은 나라들에서 전국적인 농민 련맹들을 창설하고 있으며 토지 개혁, 대토지 소유제와 미국 독점체들의 지배의 청산을 요구하는 강령들을 제기하고 있다.

금년 2월 하순에 진행된 페루 중부 지역 농민 협회 제 1 차 대회에서 농민 대표들은 페루 하원에서 채택된 이른바 《토지 개혁 법령》을 규탄하고 진정한 토지 개혁의 실시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농민들은 이러한 요구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에 떨쳐 나서고 있다. 지난 해 6월에는 브라질에서 2,000여 명의 농민들이 미국인 소유 농장들을 습격하였으며 7월에도 2,000여 명의 농민들이 대토지 소유자들의 땅을 점거하는 등 토지를 찾기 위해 투쟁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혁명 운동은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인민들의 이러한 투쟁에 의하여 꾸바에서 창조된 것은 라틴 아메리카의 다른 많은 나라에서도 꼭 같이 창조될 것이다. 카스트로가 말한 바와 같이 《어느 한때 라틴 아메리카의 전 지역이 아니면 그 대부분이 꾸바와 같이 될 것이다. 이리 하여 전 지역이 력사의 명령에 의하여 조만간에 꾸바와 같이 되고야 말 것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그 무슨 힘으로도 력사 발전의 이 합법칙적 과정을 멈춰 세울 수 없다.

문답학습

《특수 전쟁》이란 무엇인가

《특수 전쟁》은 미제의 군사 전략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특수 전쟁》은 제국주의자들이 민족 해방 운동을 말살하기 위하여 토착 주민들을 리용하여 선전 포고 없이 진행하는 식민지 전쟁이다. 미제는 이것을 일명 《비정규 전쟁》, 《반유격전》 혹은 《준 군사 행동》이라고도 하는데 그들은 주로 《특수 부대 교관》들을 《고문》으로 파견하고 자금과 무기를 대여 주어 괴뢰 군대들을 무장시키며 훈련시킨다. 미군은 통례로 이 전쟁의 《고문》으로서 참가하여 토착 괴뢰군들을 통제 장악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특수 전쟁》은 최근 미제의 침략 전쟁의 주되는 형태의 하나로 되고 있으며 날로 장성 강화되고 있는 민족 해방 운동을 막아 보기 위한 그들의 주요 《처방》으로 되고 있다.

미국 전 대통령 케네디는 《특수 전쟁》은 《이미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되였으며 또한 앞으로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60 년대의 투쟁에서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될 것이다》라고 떠벌렸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핵 무력》, 《상비적인 군사력》을 강화하는 한편 그와 대등한 정도로 《특수 전쟁》을 발전시킬 것을 계획하고 세계 도처에서 식민지 전쟁을 도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확대시키려 하고 있다.

그들은 《특수 전쟁》을 위해 《반게리라전》의 《전문가》들을 대량적으로 양성하고 있으며 실로 이 전쟁에 방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미국, 남부 월남, 오끼나와, 라오스, 비률빈, 파나마 및 서독 등지에 4 개소의 륙군 《특수 부대》 훈련 중심, 5 개의 《륙군 특수 부대》, 1 개소의 공군 《특수 전쟁》 훈련 중심지 등을 설치하고 선발된 악질 분자들로써 《미군 력사에서 전례 없는》 대규모적인 《반게리라전》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훈련 내용으로는 《폭동 진압》을 위한 과목들과 《반게리라전, 심리전》과 《적이 장악하고 있는 나라에서의 게리라전 수행》 등으로 되여 있다. 이 곳에서 훈련을 끝마친 자들이 바로 민족 해방 운동이 일어 나고 있는 세계 도처에 《군사 고문단》으로 파견되고 있다.

《특수 부대》들의 활동 구역은 대체로 네 개 지역으로 나뉘여져 있다. 오끼나와에 기지를 둔 제 1 《특수 부대》는 동부 및 동남 아세아 지역, 프트 브래그에 기지를 둔 제 5 《특수 부대》는 아프리카, 제 7 《특수 부대》는 라틴 아메리카, 서독, 바바리아에 기지를 둔 제 10 《특수 부대》는 구라파와 중동 지역 등을 각각 《분담》하고 있다.

《특수 부대》 대원들은 이러한 지역들에서 인민 무장대를 탄압 학살하는 데로 내몰기 위한 방대한 현지 고용군을 양성하고 있다.

그들은 반동 군대들과 청장년들은 물론 지어 수 많은 녀성들까지 강제로 동원시켜 《반게리라 훈련》을 주고 있으며 《반게리라 부대》를 편성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특수 전쟁》을 중요하게는 괴뢰 정권을 사촉하여 진행하는 만큼 괴뢰 정부와 군사 기구들을 이 전쟁 수행에 편리하게 개편하고 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인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자선가》의 외피를 쓰고 《사회 개혁》이니, 《경제 발전》이니 하면서 주민들 속에 들어 가 《직접 다리를 건설》하여 주며 《병 치료》도 하여 주는 등 일련의 량면 전술의 가면극도 벌려 놓고 있다.

그들은 이와 같은 《특수 전쟁》을 위해 남부 월남에만 하여도 2만 5,000 명 이상의 미군을 끌어 들였으며 매일 150만~200만 딸라 이상의 막대한 자금을 들여 밀고 있다.

그러면 미 제국주의자들이 이처럼 집요하게 《특수 전쟁》에 매달리고 있는 리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신구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민족 해방 운동이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나라들에서 전례 없이 앙양되고 있고 이것이 무장 형태로 발전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체계를 근저로부터 무너뜨리고 있는 사정과 관련된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광범한 《중간 지대》를 저들의 예속 하에 두고 치부의 원천지로, 군사 전략의 전초 기지로 만들기 위하여 오래 전부터 이 지역의 민족 해방 투쟁을 탄압하여 왔다.

그들은 《힘의 립장에 선》 정책, 아이젠하워의 《집중 보복》 전략 등으로 세계 제패를 실현하며 날로 강화 발전되고 있는 인민들의 반제 투쟁을 억제하여 보려 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오늘 각성되고 세련된 혁명적 인민들 앞에서는 모두 무기력한 것으로 되여 버렸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인민들은 생존의 권리와 자유, 민족적 독립을 위하여 미제의 어떠한 무력 책동에도 불구하고 손에 무장을 들고 항거하여 일어 났으며 이 투쟁은 날을 따라 더욱 확대 강화되고 있다. 이것은 미 제국주의자들로 하여금 핵 전쟁이나 《핵무기 공갈》 정책만으로는 도저히 변천된 현시대의 이 위대한 혁명 력량의 전진을 저지시킬 수도, 약화시킬 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테일러의 표현에 의하면 《집중 보복》 전략은 쓸모 없이 되였으며 변천된 조건에서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 요구되였다는 것이다.

이리 하여 식민지 민족 해방 운동 진압의 새로운 보충적인 수법으로서 나온 것이 바로 《특수 전쟁》이다.

물론 《특수 전쟁》은 미제의 《핵 전쟁》이나 《상비적 군사력》을 보충하는 것이지 결코 그것을 대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특수 전쟁》으로 인민들의 반제 투쟁을 진압할 수 없을 때에는 서슴지 않고 미군을 다량 침투시켜 《특수 전쟁》을 《국부 전쟁》으로 확대시키려 하고 있다.

지금 미 제국주의자들은 《특수 전쟁》을 통하여 민족 해방 투쟁을 진압할 뿐만 아니라 지어 사회주의 국가까지 파괴하려고 꿈꾸고 있다. 그들은 《특수 부대》의 훈련을 받은 자들을 사회주의 국가에 침투시켜 정부 전복 활동이나 군사 기지 탐지 및 그의 파괴 공작 등 일련의 암해 책동을 감행하게 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미제의 이 《특수 전쟁》이라는 새 수법도 그전 수법들과 마찬가지로 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에 의해 패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사실에 있어서 《특수 전쟁》은 이미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중국에서 실시하다가 파산 당한 《3 광 정책》의 재판에 불과한 것이며 불란서 식민주의자들이 이미 월남에서 적용한 파산 당한 낡은 폐물이다. 불란서의 한 《반유격전 전문가》가 미제의 《특수 전쟁》에 대하여 론평하면서 《미국은 불란서가 이미 시도하다가 실패한 모든 것을 반복하는 데 불과하다》고 한 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피압박 인민들이 거대한 승리를 쟁취하고 있는 귀중한 수단인 유격 전쟁 형식을 인민 무장대를 진압하는 데 리용하려 하지만 이것은 도저히 실현될 수 없다.

그것은 우선 그들이 인민 유격대와는 달리 광범한 인민들 속에서 지지와 성

원을 절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유격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먼저 인민들과 혈연적 련계를 가져야 하며 그들로부터 물심 량면의 지지와 성원을 받아야 한다. 인민 유격대들이 오늘 거대한 승리를 달성하고 있는 기본 요인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미제와 괴뢰 군대들은 인민들로부터 철저히 고립되여 있으므로 그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으며 따라서 그들은 인민 유격대와의 전쟁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오늘 미 제국주의자들 자신도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

미군의 한 지휘관은 적과 싸워 이기려면 반드시 그들을 찾아 내고 묘준하고 소멸해야 하겠는데 인민 대중이 그들을 감싸 주기 때문에 도저히 《적》을 찾아 낼 수 없다고 하면서 비명을 올렸다.

사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날이 갈수록 미제의 《특수 전쟁》 정책은 혁명적 인민들에 의해 도처에서 더욱더 파산되여 가고 있다.

남부 월남의 사태에서만도 이것은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부 월남을 《특수 전쟁》의 《시험장》으로 선정하고 이 식민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각종 신형 무기와 직승 비행기를 다량 투입하였으며 지어 화학 무기까지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혁명적 인민들을 굴복시키지 못 하였다. 남부 월남 인민 무장대들은 미군과 괴뢰군들을 물리치고 남부 월남 령토의 4 분의 3을 해방시켰으며 계속 승리를 거두고 있다.

1963년 첫 11 개월 동안에만도 그들은 미군 약 650 명을 포함한 약 8만 3,000 명의 적 장병들을 섬멸하였으며 5,450여 개의 《전략촌》을 파괴하고 200여 대의 비행기를 격추 격상하였다.

최근 남부 월남 일대를 돌아 다녔던 《뉴욕 헤랄드 트리뷴》지 기자 드루몬트 자신도 《현 단계에서 시간은 베트콩(인민 무장대를 말함) 측에 있다. 우리는 베트콩을 반대하는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 하고 있다. 벌어지는 사태로 보아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담보는 현재 없다》고 개탄하였다.

이 모든 것은 미 제국주의자들이 그 어떤 수단으로써도, 무기나 딸라의 《힘》으로써도 무너져 가는 저들의 식민지 체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를 세차게 휘몰아 치고 있는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은 기필코 제국주의와 신구 식민주의자들을 매장하고 종국적으로 승리하고야 말 것이다.

윤 삼 규

근 로 자 제 11 호 (루계 249 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 소 •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

인쇄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인 쇄 • 1964년 6월 3일 발 행 • 1964년 6월 5일

ㄱ—430328 값 40 전